



# 통계청이 정부 3.0을 이끌어 갑니다.



Open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Service government

발.  
간.  
사.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박형수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신이 업무 전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국민수요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계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귀농인통계, 기업생멸통계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 응답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우리 청이 추진해온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28건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3.0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과 학습으로 정부3.0에 앞장서 주신 전국의 3,000여명 통계가족 여러분과 행정자치부 등 통계청의 정부3.0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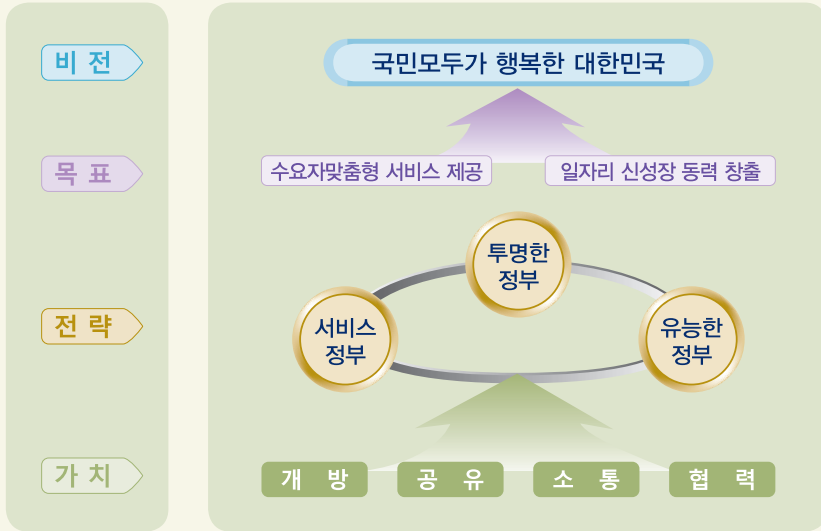
## ■ 정부3.0 개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 ■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



## ■ 정부3.0 비전 및 중점과제



### 정보3.0 중점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부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통계청 정부3.0 추진경과

## 중점추진

- 범정부 「정부3.0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및 선도과제 선정
- 국민체감 확대를 위한 청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 국민중심, 성과중심의 정부3.0 추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④ 범정부 정부3.0 추진 계획 및 민간자문단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행계획 수립 추진

- \* KOSIS를 통한 국가통계 집중과 공유, 통계생산 범부처 협업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등 16개 이행과제 등 「13년 정부3.0 이행계획」수립(13.7.17)
- \* 국민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등록센서스 추진 등 12개 선도과제 발굴 등 「14년 정부3.0 실행계획」수립(14.3.25)
-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른 자체 40개 세부과제 및 12개 주요추진과제 선정 등 「정부3.0 실행계획(14.10~17.12)」 수립(14.10.14)

- ④ 정부3.0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 정부3.0 체계적 추진을 위한 회의체 구성 운영(13.4.25)
- \* 기관·부서단위 책임관, 담당관, 담당지정 및 정부3.0 민간자문단 구성(14.3.11)

## 정부3.0 변화관리

- ④ 부서별 정부3.0 추진성과의 성과평가 반영(14.3.29)

- \* 정부3.0 과제발굴→추진/관리→성과 등 진행단계별로 평가하여 각 부서장 성과평가 가감점 적용(+0.2/-0.05)

##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 ④ 정부3.0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자체 BP경진대회(13년 27건, 14년 42건)
- ④ 정부3.0 성과보고대회 개최(13.12.17, 14.12.19)

## 정부3.0 교육 및 홍보

- ④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13년 18회 1,966명, 14년 52회 3,228명)
- ④ 정부3.0 국민체감 확대를 위한 자체 홍보추진계획 수립·시행(14.7.29)
  - \* 언론보도, 기념품, 간행물 등 모든 홍보매체에 정부3.0 문구를 포함하여 홍보

# 주요 추진성과

## 주요성과

-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통계 개발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추진 등 공공데이터의 부가가치화 선도
  - ※ 등록센서스 추진
    - 2014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추진과제로 선정('14.5.1)
    - 범정부 「정부3.0 브랜드과제」 선정('14.8.1)
    - 범정부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1차 전문가심사 결과 30선, '14.11.6)
- KOSIS, MDSS, SGIS 오픈플랫폼 등 분산형 통계를 수요자 중심의 집중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Open government

## 투명한 정부 구현

###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 개방 확대

#### ⊕ 사전정보 공개 확대

- 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 79개 → 201건
  - \* 통계청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13.12월)에 따른 정보공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 대메뉴 생성 등 정보 접근성 강화

#### ⊕ 운영DB 개방 선도 및 공개범위 확대

- (개방률) 48개 DB 중 45개 개방(93.7%)
- (공유서비스) 국가통계 통합DB 및 통계지리정보 DB OpenAPI 제공
- (개방범위 확대) 3대 핵심DB를 범 정부차원으로 확대
  - \* 국가통계 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통계지리정보(SGIS)



Competent government

## 유능한 정부 구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통계 생산 및 기반 구축

- ▶ 범부처 보유 공공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및 개선
  - 행정자료 141종 입수하여 통계청 58종 통계 중 36종 통계에 활용
  - \*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개발, 귀농인통계 등 신규통계 생산 5종, 기존통계 항목대체·보완 31종
- ▶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추진
  - 12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80%의 응답부담 경감

### 통계생산 표준화 및 집중화 기여

- ▶ 통계작성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확산 및 통계생산 인프라 확충
  -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314종 국가통계 시스템 운영

###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시스템 구축
  - 네이버 등에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가격정보 수집 및 일일물가지수 생성
  - 체감물가수준 파악을 위해 온라인물가지수와 CPI, PPI, EI 등과 비교분석





## 서비스 정부 구현

Service government

### KOSIS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 ▶ KOSIS 공유서비스 제공 및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14.3)
  - \* KOSIS공유서비스 이용건수 : ('14.3월초) 9,242건 (16명) → ('14.8월말) 802,974건 (155명)
- ▶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 제공
  - KOSIS 모바일 통계지표 250개 확대 및 UI개선

### 마이크로데이터 무상제공 및 자료제공 범위 확대

- ▶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무료제공 및 자료제공범위 확대
  - (무료제공) 1960년~2010년까지 50년간 인구주택총조사 11개 시리즈('13.3월)
  - (제공범위 확대) 기업활동조사, 생활시간조사 등 8개조사, 240개 항목('13.7월)

### SGIS 오픈플랫폼 구축

- ▶ SGIS 오픈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3)
- ▶ 민관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3.11)
  - \* 대국민 위치기반 통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현대자동차와 MOU 추진

# 목. 차.

## Contents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Open government

- 015 알아서 공개하는 투명한 통계청
- 019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편의시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 025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 031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대! 국민이 선정한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 037 우리나라의 국부(國富)는 얼마일까요?
- 043 민관협업을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업 통계 생산
- 047 수협 기관과 협업으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정확하게~
- 051 우리 섬 어업 통계는 “섬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갑니다.



###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Competent government

- 057 인구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응답부담이 줄어요!!
- 067 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 071 유능한 정부의 업무 다이어트, 아리랑 위성을 활용한 슬림한 경지총조사
- 077 국가통계 생산의 표준화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083 지역통계 무료컨설팅으로 지자체 발전전략 수립 지원
- 089 「일·가정 양립지표」를 한 곳에서!
- 093 영상회의로 얼굴 보고, 정도 들고, 일도 술술
- 097 빅데이터를 통한 물가정보 생산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Service government

- 105 범정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실현
- 109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死因)분류 검색과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 113 생애주기별 통계분석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 119 응답자에게 친숙한 조사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 125 어려운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으로 보면 쉬워요!
- 129 1년간 소득과 지출, 맞춤형 통계 정보지 "스마트한 우리 집 살림살이"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133 소년, 소녀 통계를 만나다
- 139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의 수익이 많을까? 편의점? 치킨점?
- 145 창업하기 좋은 곳, 빅데이터로 찾는다
- 151 사랑나눔 통계교실, 소외계층 학생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다.
- 157 취약계층의 웹·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163 KOSIS 모바일 서비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통계정보를 볼 수 있어요!



## 통계청 정부3.0관련 주요 언론보도

STATISTICS KOREA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open government!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청의 통계자료!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알아서 공개하는 투명한 통계청

\* 김봉례·이정훈 운영지원과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C군은 레포트 작성을 위한 서울의 기초 현황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깜짝 놀랐다. 경인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에서 서울의 인구, 주택, 사업체, 의료 기관종사 인력, 쓰레기 수거현황 까지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페이지를 통해 국가통계포털까지 안내되어 다른 통계까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에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통계뿐만 아니라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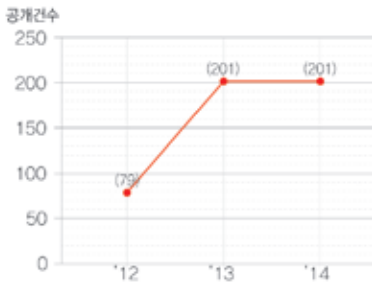
그동안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통계 포털, 연구자 등의 심도 있는 통계자료 활용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각종 국가정책 주요 지표를 한 눈에 알아보도록 구성한 e-나라지표 등 통계자료 공개에는 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왔다.

그러나, 통계수치 자체에 대한 공개뿐 아니라 통계청 내부 통계행정 자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통계청이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통계청은 2013.6월 사전 정보공개제도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서별 자발적인 공개정보를 발굴 하였다. 기존에 사전공표하던 79건의 공개정보를 총 201건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 통계청 사전정보공개 연혁



특히, 행정감시의 주요 대상인 간부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 월 공개하였고, 각종 계약 및 상품권 구매 내역 등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던 국민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

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통해 일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 없이, 누구나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통계청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홈페이지(<http://kostat.go.kr>) 첫 화면 첫 번째 “정부3.0 정보공개”메뉴에 배치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통계청 사전정보공개제도 확대의 특기할 점은 통계청 본청 홈페이지에만 운영하던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5개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신설, 운영하게 된 점이다. 이로써 각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사전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2014년 현재 통계청에서는 공개대상 정보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현재 사전공개 중인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개 정보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통계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개일부	공개내용	공개일	공개방법	담당부서
정책실정보	중점연구과 산사업 성취기준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기획재정부
	중점연구과 산사업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기획재정부
발자입부	소출현황, 출원, 예과, 고사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고용노동부
	조각도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상업진흥청
조각	연혁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당국
	최근 연산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당국
국가통계위원회	제회 계획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상장연전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위촉승격회 개최 및 결과보고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위탁)의 정태(타) (MOK) 제출서한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주요통계작성기관 (East-Prisco)결정 후발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해외작성기관(위탁) 승격결과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조사연구실	조사연구실(위탁) 승격결과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조사연구실(위탁) 승격결과	수시	정보공개포털(www.kosist.go.kr)	통계청과

〈 사전정보 공개화면 〉

단순한 수치로써의 통계가 아닌

커뮤니티의 장으로

지역의 발전, 편의, 복지 시작입니다.



#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편의시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 지도위 통계를 보면서 토론해요....커뮤니티맵!!! -

\* 선 근 섭 공간정보서비스과

J시에 사는 K씨...은퇴 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노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친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타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몇몇 친구들과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한다. 이동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매일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우리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있었으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몰라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

J시 복지담당 공무원 L씨...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지, 실제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K씨는 우연히 SGIS 오픈 플랫폼(<http://sop.kostat.go.kr>)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맵 서비스를 통하여 이 지역의 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K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 지역주민이 ‘우리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커뮤니티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다.

서비스 이용법도 간단하여 K씨 연배의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지도위에서 현재 사는 위치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만하면 바로 커뮤니티맵에서 동참할 수 있었다.

한편, 복지담당 지자체 공무원 L씨는 SGIS 오픈 플랫폼의 커뮤니티맵 서비스를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알 수 있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 관련통계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맵에 참여하여 이 지역에 확충되어야 할 시설이 무엇이며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분석결과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의견이 일치될 수 있었으며, 결국 이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었다.

### 소통 중심의 시민참여형 서비스, SGIS 오픈 플랫폼! 지도위 시각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전에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하던 SGIS(통계지리정보 서비스)는 콘텐츠를 통한 단방향 서비스였고,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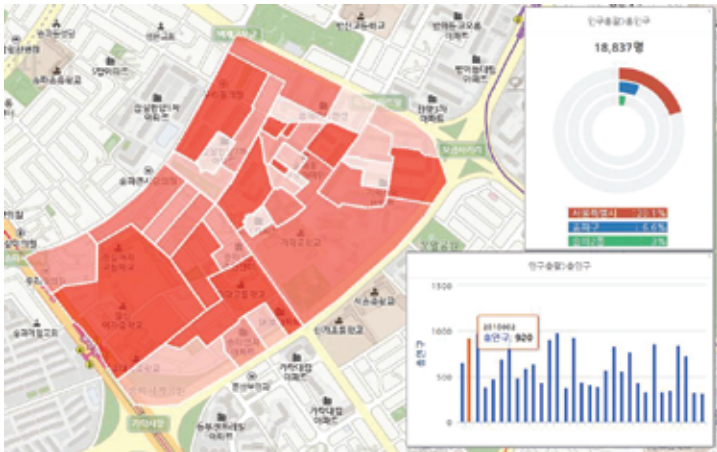
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중심의 시민 참여형 서비스인 SGIS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커뮤니티맵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SOP(SGIS 오픈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SGIS 오픈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가 자유롭게 통계청 센서스 자료와 공공·민간자료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소통·참여·맞춤형·양방향 플랫폼서비스를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과 정책 신뢰성은 물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정부3.0’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SGIS 오픈플랫폼 화면



**한국경제**

2013년 11월 19일(화) 종합

**통계청, 민간데이터 포함한 통계서비스 구축**

통계청이 기업 등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와 ‘위치기반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디지털 지도 위에서 읍·면·동보다 훨씬 상세한 단위(집계구)로 인구·가구, 사업체 부문 등 방대한 총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SGIS)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데이터 외의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도 함께 처리해 복잡한 현안들의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민관협력을 통한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정부 3.0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2014년 06월 25일(수) 경제

**통계청, 통계지리정보 활용사례 서비스 개시**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통계청은 25일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해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등록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gis.kostat.go.kr/share>)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경제산업, 교육문화, 교통환경, 도시계획, 사회복지, 재해기후 등의 영역별 활용사례가 담겨 있다.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은?

국가통계포털 (KOSIS)!!





##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 권재열 통계포털운영과

나만의 경제지표를 만들었으면!

D시에 사는 K씨. 평소 경제동향에 관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에게 걸어 다니는 경제학 박사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 주식에서 크게 손실을 입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대학에서 IT를 전공하는 아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어 품목별 생산·출하·재고, 실업률, 금리 등 유용한 경제지표와 함께 차트로도 보여주는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 새로 투자할 종목도 같이 선정하고 자신은 앱을 더욱 발전시켜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 모든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로 집중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 말 현재 388개 작성기관에서 937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일반 국민이 원하는 통계가 어느 기관에서 작성되는지 혹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쉽게 알지 못한다. 통계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의무적으로 통계청으로 제출하여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였으며, 통계공표 결과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특별점검(14.6~10월)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한 국가통계의 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둘째, 이렇게 수집된 통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통계정보 공개에서 개방으로 – KOSIS 공유서비스(OpenAPI)

KOSIS는 2014년 11월말 현재 244개 기관의 742종, 83,660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611만 명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통계표 형태의 정보제공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청은 이런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넘어 이용자가 통계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OpenAPI)를 개발하여 2014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SIS 공유서비스는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 등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통합DB에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만을 모은 통계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모바일 앱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작도 가능하다.

## 통계를 활용한 창조기업이 탄생하는 그 날까지~

KOSIS 공유서비스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이용건수가 12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한다던지, STATA 프로그램에서 인구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불러들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활용 예가 다양하다. 아직은 KOSIS 공유서비스가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보유한 다양한 정보와 국가통계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창조기업이 탄생되는 순간을 기대해본다.

### ■ 국가통계 개방·이용 확산대회 부대행사 (UCC 및 앱 개발 출품작 전시 및 현장평가)



〈 UCC 및 앱 공모전 홍보부스 〉

■ KOSIS 공유서비스(Open API) 활용 사례



〈 KOSIS 공유서비스 메인화면 〉



〈 KOSIS 공유서비스 활용사례(고용노동부)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03월 05일(수) 경제

## 국가통계 이용해 모바일앱 제작 가능해진다

국가통계 이용해 모바일앱 제작 가능해진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공유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국가통계를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끌어다 쓰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5일 국가통계포털(KOSIS) 공유서비스 사이트(<http://kosis.kr/openapi>)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서비스는 사용자가 KOSIS의 통계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기 위한 오픈 인터페이스(API·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KOSIS 통계정보를 자체 DB나 웹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동하거나 매쉬업(Mash-up·오픈 API를 기초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등으로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통계청은 또 KOSIS 통계표 조회 방식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세만 지원하는 비표준 프로그램 액티브엑스(ActiveX) 기반에서 HTML 기반으로 바꿨다.



정확의 바다에서

믿을 수 있는 통계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정모니터링시스템~~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

#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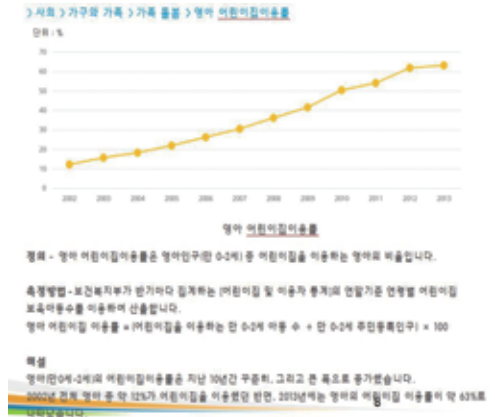
## 국민이 선정한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 이 희 정 통계정책과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사내 커플인 I씨, J씨 부부는 올 가을 첫 아이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걱정이 되었다. 부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요즘 부부들은 몇 명의 아이를 갖는지, 한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증도 많아졌다. 뉴스에서 여러 지원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어 여러 사이트를 찾았다. 포털 사이트,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중에 무엇을 봐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던 부부는 통계청이 국가 발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정모니터링 시스템(www.index.go.kr)에 접속하여 궁금하던 출산 등 인구변화와 가족돌봄에 관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해설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아이가 1970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2013년에는 48.5만 명으로 반 이상 줄었고, 여성이 낳는 아이 수도 1970년 4.5명에서 최근에는 1.2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만 0~2세 영아의 유일한 사회 돌봄 시설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과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지표는 그동안의 지원 정책으로 자녀의 사회 돌봄과 가족 내 돌봄 기능이 모두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가오는 육아에 대한 근심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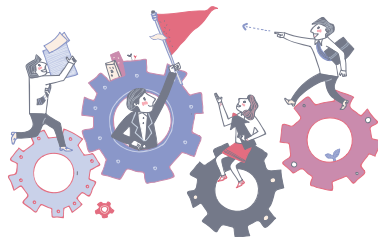


## 국가발전상황을 한눈에 국가주요지표체계

통계청이 '14년 4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국가 주요지표 체계 서비스는 이와 같은 국민들과 정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주요지표 체계는 우리나라의 웰빙 수준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 부산에서 통계청이 OECD와 공동 개최한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 세계포럼” 직후 기획돼 통계청과 민간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완성됐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특허출원 건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뿐만 아니라 음주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국민의 웰빙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비교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민간 주도로 국가 주요지표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국가주요지표 리플릿

**추진과향**

유호의 관행에서 '국민행복'으로, 교육 및 소득을 위한 주제로 추진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50명씩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교육, 문화, 안전 등 7개 분야(분야)의 100여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1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3일, 2013년 1월 14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가주요지표의 최종 후보지표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개발해 보완하고, 끊임없는 추가 연구를 통해 국가주요지표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성**

국민의 생활과 국가 발전(national economy)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3개 분야 부문, 6개 영역 62개 항목 143개 항목 200여개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중 100여개 지표를 주요 지표, 43개 항목 143개 항목 200여개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민행복	5	경제	10	문화	8
생활안정	7	사회	10	교육	10
국민행복	5	환경	10	문화	8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국민행복	5	문화	8	교육	10

다 많은 미래를 여는 열쇠는  
현대의 과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를 **이전** 합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가 다를 땐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주세요.

**국가주요지표**  
www.index.go.kr

다 많은 미래를 여는 열쇠는  
현대의 과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를 **이전** 합니다.

www.index.go.kr

**1**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통계들 중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고,  
난민인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통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을 알았던  
지표 중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를 **보다 깊게** 봅니다.


국가주요지표는 쉽고 명쾌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심도 깊은 이해도 지원합니다.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예상, 상세한계표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보충지표와  
세계 각국과 비교하는 국제지표를 통해,  
우리의 발전상황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를 **보다 균형 있게** 봅니다.

생활에 지치지 않고 경제에서 하나의 편견을 만드는 것만,  
현실과 현실을 함께 생각하며  
국가발전상황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지표는 우리의 발전상황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의 합리적인 전문세계에  
필요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주요지표에서 우리의 경제, 현재, 미래를 폭넓게 관찰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가주요지표 홍보 전단



**국가발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지표**

-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정부의 흥수 속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지표를 구성한 지표체계를 통해 국가 발전 상황을 균형 있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그린 e-나라지표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계급 통계가 721종으로 너무 많아 친체적인 조망이 어렵고 예산분류체계로 제공하는 등 제공방식도 정부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해설, 통계표, 관련 지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www.index.go.kr)**을 통해 회원 가입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index.go.kr


통계청 콜센터: 02) 2012-2014 / 국민일어 110

**국가주요지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수요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 '13년 5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원서 24명의 전문연구원을 구성하여 연구용, 정책용,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연 인원 88명의 각계 전문가가 이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 공청회(13.11.13, 국회), e-나라지표 사이트 등을 통해 각 계 각종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 **국민의 발전과 국가 발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3개 부문**의 16개 영역, 6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요 정책 수립에** 간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과 중심 지표로 주요지표 14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 주요지표에 각 지표를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보조지표와 국가별 비교 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디지털타임스

2014년 04월 22일(화) 경제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서비스...국가발전 상황 체계적 파악 기대

통계청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 상황을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주요지표서비스를 국정모니터링시스템(www.index.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만으로는 국가발전 상황 전체를 균형있게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e-나라지표시스템'이 제공하는 721개 지표로는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3개 부문 아래에 16개 영역을 두고 다시 그 밑에 62개 하위영역을 두는 체계로 구성됐다.

경제 부문은 국민경제,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사회 부문은 '가구와 가족' 등 9개 영역, 환경 부문은 '생활환경과 오염' 등 2개 영역으로 세분화 돼 있다.

또 143개 주요 지표를 엄선해 등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178개와 국제비교지표 128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프와 함께 지표의 정의, 측정방법, 해설, 상세통계표 등이 제공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정부의 흥수 속에서 국민이 한국의 발전상황을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관별 동일계열 통계의 불일치 문제!

‘국민대차대조표’로 신뢰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합니다.



| 민·관 협치 강화 |

## 우리나라의 국부(國富)는 얼마일까요?

\* 정동욱 소득통계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처음 공동작성한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을 알아보자.

### 유사한 통계 간 서로 차이가 있다면 이용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국부(國富)하면 대부분 통계청에서 68년부터 97년까지 10년  
주기 직접조사로 작성한 국부통계조사와 이후 매년 간접추계로 작성한  
국가자산통계를 떠올린다.

그런데 어떤 이용자가 단독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건물의 자산 규모가  
궁금하여 기존의 국가자산통계와 새로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적지 않은 혼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떤 자료를 이용해야 할지 두 자료는 왜 다른 지 등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

하면서 국가통계 품질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자.

### 정부3.0 핵심가치(공유·소통·협력) 이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통계청은 유사·중복 통계로 인한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분야를 분담하고,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자산통계 작성 등을 골자로 공동작성 협약을 체결(13.11.5.)하였다.

통계청은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고정자산과 토지·입목 등과 같은 비생산 자산의 자산계정을 작성하고, 한국은행은 그 결과에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추가하여 제도부문 및 경제활동계정 등을 작성한다. 즉, 기존의 국가자산 통계와 새로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하나의 통계로 만들었다.

또한 두 기관은 협업을 위해 기초자료와 추계모수 등 작성방법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매월 1회 이상 실무협의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통계 불일치 문제도 해소하였다. 아울러 두 기관의 일치된 국민대차대조표 작성결과와 함께 그 과정도 공표(14.5.14.)하여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국민대차대조표는 무엇인가?

우리집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우선 주택·토지 등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예금·적금 등 금융

자산을 합하고 대출금 등과 같은 금융부채를 뺀 규모로 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國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물자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를 합한 것인데, 이와같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자산(富)으로 축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통계표이다.

		경제주체						경제주체				
		(비)금융 법인	정부	가계	국내	해외		(비)금융 법인	정부	가계	국내	해외
기초 B/S	비금융자산						금융부채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A)				國富	
B/S 증감	비금융자산						금융부채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증감(B) 거래 요인 거래외 요인					
기말 B/S	비금융자산						금융부채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A+B)				國富	

##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3.0 핵심가치 이행으로 실물자산통계의 일치된 결과를 작성함으로써 유사중복통계로 인한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였고, 협업과 분업으로 국가통계 인적자원의 전문성 및 활용의 효율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모두 알게 되어 가계 및 정부 등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고, 70년 이후 장기 시계열을 작성함으로써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생산성분석 등 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통계인프라도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 이어 7번째 작성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국제 위상제고는 물론 국제 비교가 가능해져 선진국 사례를 활용한 정책수립 지원도 강화하게 되었다.

매년 우리나라 국부(國富)는 통계청·한국은행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 국민대차대조표로 알아볼 수 있다.







( 통계청·한국은행 공동 브리핑 장면 ('14.5.14) )

**연합뉴스**

2014년 05월 14일(수) 경제

## 한국의 국부 규모 통계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의 국부 규모 통계 처음으로 나왔다〉 시사평가 방식으로 토지가격 평가... 감가상각도 도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새 국부 통계는 처음으로 토지·건물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국가 자산을 측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가계·정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금융자산의 총액과 증감을 연간 단위로 볼 수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의 발생→분배 및 사용→축적'을 통해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부(富)로 축적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합친 '실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었다. 비금융자산 가치의 평가와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다.

그동안 통계청은 한국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5~6개 기관과 공동으로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4차례에 걸쳐 10년에 한 번씩 전화조사, 현지조사 등 직접조사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직접조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 1998년부터는 199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국가자산통계를 내왔다.

이 통계에서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자산(비금융자산) 총액은 8천677조원으로 토지자산(3천884조원)이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국부 통계에서 2012년 말 비금융자산은 1경731조원이며 토지자산은 5천604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한다.

비금융자산 수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이전 통계에서는 부동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계했다가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토지는 실거래가격자료와 감정평가가격 등을 이용해 공시가격을 시가로 전환했다. 보통 토지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훨씬 낮다.

또 건물과 토지뿐 아니라 젓소·한우 등 가축과 사과나무 등의 식물자산, 연구개발(R&D)·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생산물도 자산으로 반영하면서 국부 규모가 커졌다.

새로운 국부 통계는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작성 시점의 현재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산 보유가격이 올랐다면 이것도 매년 반영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토지자산 시가평가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해 매년 5월께 연간단위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개별로 통계 조사

협조하느라 힘드셨죠?

기업과 정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로

개선해나갑니다.



## | 민·관 협치 강화 |

# 민관협업을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업 통계 생산

\* 강 영 민 산업통계과

조사원 : “부장님 안녕하세요? 작년도 6월달에도 찾아뵈었는데, 그동안 잘지내셨죠? 건설업조사 기간이라 방문드렸습니다.”

건설업체 : “뭐라구요? 며칠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다 조사해 갔으니 그쪽에서 달라고 하세요. 오후에 전문건설협회에서도 나온다더니....도대체 몇군데서 오는거야?”

조사원 : “네...그러세요. 그래도 통계청은 국가통계작성기관이고, 기업체는 통계응답의 의무가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체 : “우리는 먹고 노는 줄 아십니까? 안그래도 너무 바쁜데, 전기공사 협회에서도 나오고, 설비건설협회에서도 나오고, 한두군데도 아니고 똑같은 자료를 매년 서로 달라고 하니...나원!!!!”

여러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여 기업체에서는 응답부담이 가중되고, 정부 및 민간의 여러 조사기관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조사체계개선을 통하여 조사를 일원화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같은 조사, 다른 결과

건설업체는 지난 1년간의 수행한 모든 건설공사 실적과 결산자료 및 기업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통계청과 8개 건설관련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과 8개 건설관련 협회<sup>1)</sup>에서는 이 자료들을 취합하여 전년도 건설경기와 건설산업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정부는 이를 기초로 건설정책 및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기업이나 연구소는 경영계획 수립이나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작게는 2곳에서부터 많게는 9곳에 건설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조사기관에서는 유사내용을 중복으로 조사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통계수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 통계이용자들은 어떤 자료를 이용할지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된 통계자료를 기초하여 정책수립을 하는 경우 심각한 예산, 인력 및 시간 낭비로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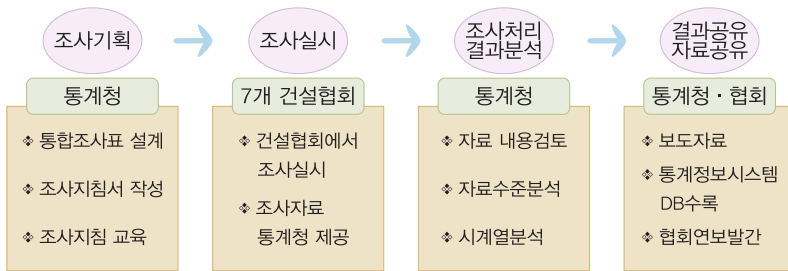
---

1) 8개 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해외건설협회

## 통계청, 건설협회의 협업으로 조사의 정확성 UP!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건설관련 협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사를 일원화하고, 그 결과자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사체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조사는 건설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설협회에서 실시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기획·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는 통계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담당하였다.

### ■ 조사 프로세스 조정



## 민·관 협업을 통한 공동조사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건설업체는 건설협회에 1회만 조사 응답을 하게 되어 응답부담이 경감되었고, 건설관련협회는 자료처리 및 수준분석 등의 업무를 통계청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경감, 통계청은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 조사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단일화된 통계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정부기관,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의 통계이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간 또는 정부와 민관간 유사·중복통계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가자원을 절감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위판자로 처리 단계

보완.강화로 정확한 어업생산동향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민·관 협치 강화 |

## 수협 기관과 협업으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정확하게~

\* 오 지 현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통계조사관 A씨는 수협 경매현장을 갈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사의 수신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경매사에게 물었다.

조사관 : “정말 바쁘시네요! 그런데 수산물의 무게는 측정 안하세요?”

경매사 : 통명스럽게 “무게 측정이요? 살아있는 수산물 무게를 측정해서 언제 다 경매해요. 시간도 없는데”

조사관 : “그럼 어떻게 생산량을 기록하나요?”

경매사 : “상자, 대야 개수를 적어 생산량을 환산해요!”

조사관 : “그럼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경매사 : “할 수 없어요. 일손도 부족하고 빨리 경매를 하지 않으면 어민들이 항의해요. 실정도 모르면서…….”

수산물 수협 위판량은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수협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청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에서 경매하는 현장을 보았거나 직접 위판을 경험해 보았다면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매일 정확하게 기록 될까?

통계조사관 A씨는 '하루에 수백 건씩 위판 되는 수산물이 무게 측정도 하지 않고 수협직원 1~2명이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적용하면 정확한 통계가 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 수협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자료의 질을 향상

정확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위해 수협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자료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했다. 즉 위판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수협 경매사, 수협직원과의 간담회와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업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상자, 대야 개수를 기록하는 것 외 목측 생산량(kg 단위 기준)을 추가로 입력 하도록 개선하고 무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수협 경매사들에게 매일 위판 되는 모든 품종의 평균 가격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수협직원이 자료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착오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오류가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수협기관 간담회〉



〈협업 교육장면〉



## 자체 내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내검 실시

육안으로 시행하는 수동 내검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 내검 프로그램 개발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내검을 실시하였다.

### ■ 수산물 위판자료 처리 단계



수산물 위판자료 처리 단계를 개선한 결과 정확도 높은 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협기관과 협업의 결과로 수산물 생산량 입력 자료가 개선되었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수동내검으로 놓칠 수 있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내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검 기능 자동화는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동 내검 보다 70%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동남지방 통계청 통영사무소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계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섬주민이 직접 조사하여  
우리지역 어업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 | 민·관 협치 강화 |

# 우리 섬 어업 통계는 “섬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갑니다.

\* 조 영 초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

섬에서 어부 생활 30년.. A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오랜 어업 활동으로 어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60세가 넘는 나이 탓으로 힘든 어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 지역 내에서 어업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는지라 오늘도 동년배들과 만나서 옛날 옛적 이야기꽃을 피운다.

통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 그는 섬 지역 통계조사를 위해 오늘도 여전히 일찍 출근을 한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다짐하면서 차를 타고, 배를 타서 섬에 도착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던 탓일까? 30명을 만나야 하는데 하루 새 8명 밖에 만나지 못했다. 내일 다시 섬에 갈 생각으로 사무실로 되돌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섬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부3.0 시대에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섬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틀에 박힌 사고를 깨야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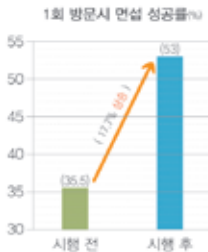
통계청장 : “섬 지역 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직원 B :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면접조사 비율은 낮는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고...”  
 통계청장 : “그럼 섬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한번 추진해 보지요?”

### 섬 주민을 현지조사원으로 채용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섬 지역 조사 대상처가 가장 많은 강진·목포·해남 3개 사무소 협업으로 금일도, 하의도, 조도 등 섬 지역 주민을 현지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조사 방식의 대대적인 개선을 이루어 냈다.

첫째로, 섬 지역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고  
 둘째로, 평균 이동시간(5시간→20분)과 비용(24.6% 절감)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섬 마을 A 주민이 직접 통계조사를 함으로써, 비오는 날, 늦은 오후, 저녁 시간대 등 응답자 일정에 맞춰 통계조사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유대관계 강화 및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 ■ 섬지역 현지인 도급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



정부3.0에 발맞춰 통계조사 방식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었다. 섬 지역 맞춤형 조사방법 도입으로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였고, A씨와 같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다.

#### ■ 섬 지역 현지인 도급제 추진 프로세스



일 잘하는

# 유능한 정부

competent government!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로

예산절감, 응답회답감 해소!





##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인구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응답부담이 줄어요!!

\* 민병희 등록센서스과

국민 대부분은 통계청하면 그 어떤 조사보다도 “인구주택총조사”를 떠올리게 된다. 통계청은 1925년부터 90년간 매 5년마다 전국의 가구를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국가의 인구·가구와 주택에 관한 기본통계를 생산하고 고령화, 저출산, 주택공급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조사원이 가구방문 시 부재 중인 경우가 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의 증가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가정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5년 주기의 통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하나로 다가오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 등록센서스는 뭔가요?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가용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은 현장조사 없이 12개 기관(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관리중인 21종의 공공데이터(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를 서로 연계·활용하여 작성한다. 단,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정책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모든 가구의 20%만 표본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한다.

### 등록센서스 통계청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등록센서스는 여러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12개 기관과 등록센서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데이터의 안전하고 시의성 있는 개방·공유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등록센서스 도입에 앞서 공공데이터 자체의 품질제고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통계청장(차장)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부단체장)을 만나 주민등록 등 공공데이터 정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제1회 등록센서스 협의체 회의(0.26) 〉



〈 차장님 전남도청 방문 부지사 대담(0.23) 〉

## 등록센서스 실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센서스가 도입되면 모든 가구의 80%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응답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인의 방문 부담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예로 맞벌이를 하는 주부 김모씨는 “인구조사를 할때마다 낯선 조사원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 퇴근 후 식사준비 등 바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야 돼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등록센서스 방식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네요”라고 했다. 또한, 5년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산하던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통계도 매년 비용없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수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예산도 1400억이상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서로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등록센서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프로세스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에 활용되는 공공데이터 21종

공공데이터명(21종)	제공기관(12개 기관)	이용 목적	
주민등록부	안전행정부	인구 · 가구 모집단 생성	
도로명주소(국가기초구역) 자료		거처 모집단 생성	
외국인등록부	법무부	인구(외국인) 모집단 생성	
재외국민거소신고자 명부		인구 보완	
외국적동포거소신고자 명부		인구(외국인) 보완	
불법체류자(단기체류자격)명부		인구(외국인) 모집단 생성	
출입국자료		인구(해외거주자) 보완	
교정시설 수용자 명부		가구 보완	
소년원 원생 명부		가구 보완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가구 보완
사회시설명부		보건복지부	인구, 집단가구 보완
군인(사병) 명부		국방부	가구 보완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외교부	인구, 가구 보완	
의무경찰 명부	경찰청	가구 보완	
의무(해양)경찰 명부	해양경찰청	가구 보완	
의무소방대원 명부	소방방재청	가구 보완	
전기시설(주택용) 자료	한국전력공사	주택(거주가능가구수) 보완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주택 보완	
주택공시가격자료		주택 모집단 생성	
학적부(대학)	교육부, 각 대학	인구(실거주지), 가구 보완	
기숙시설(대학) 이용자 명부		인구, 집단가구 보완	

■ 등록센서스 리플릿



**01 등록센서스가 무엇인가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건축물 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 등록센서스 연구는 기존 행정과 같은 방식으로

**02 등록센서스를 꼭 해야 하나요?**  
 예, 등록센서스는 1,200만 명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야 합니다.  
 2025년의 기준 방직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 약 2,700억 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되며, 하지만 등록센서스는 약 1,400억 원만 절감합니다.

**03 등록센서스를 어떤 우로도 받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 생산(91%) 제외한 약 9%의 2025년 조세에 할당하여 합니다.  
 (7월분부터 100% 조세부담)

**04 혹시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등록센서스에 필요한 행정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등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정보는 자기정보의 용도에 맞게, 기능에 필요한 안에서 절제하여 관리합니다.



**05 등록센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등록센서스는 다양한 데이터가 통합되어 만들어집니다.  
 1차 1 행정내 집수  
 2차 2 행정내 연계  
 3차 3 등록센서스 DB구축  
 4차 4 인구·가구·주택 데이터 생성

**06 등록센서스는 언제 하나요?**  
 2025년 1월 1일(대안)인양 1회 등록센서스가 실시 예정입니다.

**07 등록센서스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등록센서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최대한 행정기관이나 가정에 주민등록 호를 비치하여 도와주세요.  
 지역·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은 관련 주민등록서 신청(2025년 1월) 부탁드립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새로운 변화! 「등록센서스」 실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통계청장  
 12152당첨 시군 현주소 101 중앙로(627동) 2층  
 등록센서스과 ☎ 02-2642-2755



## 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요

- 2015년 이전 -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의 조사집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015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12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등록센서스를 도입합니다"



### 등록센서스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요

- 등록센서스 도입 : 기관별 전조사 전수검사는 현장조사 없이 12개 기관 전연방의 국민등록부 등에서 관리하던 각종의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전연방의 부패 사후, 연방, 읍면지역 특검을 취소합니다.
- 현장조사 방법 : 전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무인탐색에 의해, 20% 가량의 표본 대상으로 기존과 같은 방식에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8주)와 등록센서스(8주)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식

조사대상 가구의 20% 가량의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연방의 부패 사후, 연방, 읍면지역 특검을 취소합니다.

## 3 등록센서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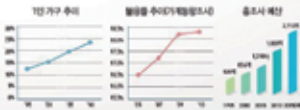
"아아! 현장조사를 대신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군요~!"



### 등록센서스 도입의 이유가 궁금해요!

- 현장조사 운영의 안정성
- 신뢰성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사비용의 절감

등록센서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대표적으로 조사원에게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및 장애인 부부의 출생 사망률 조사에 대한 번거로움이 부지 출생이나 사망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되었고, 전연방의 경우 등록센서스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등록부 공공데이터의 전연방으로 통계작성 및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연간 200억 원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부지 간 운영비용의 절감·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 4 등록센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 공공데이터들로 통계의 품질을 높입니다!"**

1단계: 공개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2단계: 1. 공공데이터 수집, 2. 공공데이터 분류, 3. 공공데이터 연계, 4. 등록센서스 연구, 5. 등록센서스 운영

등록센서스 연구

● 등록센서스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생산됩니다.

**인구**

- 4차산업
- 유인양호 제도
- 출생·사망 등록
- 4차산업
- 1차산업(농림수산업) 등록

**주거**

- 신축증서
- 주택공시 가격
- 2019. 주택공시

### 5 어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나요?

2019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해 인건정보부터 주민등록비, 국고고용비와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기관 21종의 자료를 접수 및 연계하여 활용합니다.

**"인구·가구·주택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21종이 이용됩니다!"**

● 2019년 등록센서스 활용하는 공공데이터의 주요 정보 3.0

부문	공공데이터	개요	이용 목적
인구	총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인구, 가구, 취업인, 실업인
	고령인 조사	인구조사(고령인)	인구조사(고령인) 통계
	재외국민조사(외국인)	인구조사(재외국민)	인구조사(재외국민) 통계
	외국인등록조사(외국인)	외국인등록조사	외국인등록조사 통계
	행정안전부인구조사(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인구조사	행정안전부인구조사 통계
	출생·사망	출생·사망	출생·사망 통계
	공민등록	공민등록	공민등록 통계
	신입학	신입학	신입학 통계
	사망률	사망률	사망률 통계
	4차산업	4차산업	4차산업 통계
가구	주택공시	주택공시	주택공시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주택공시 가격 통계
주거	주택공시	주택공시	주택공시 통계

### 6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내 정보는 안전한가요?

등록센서스를 위해 사용되는 공공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료 간 연계를 위하여 가상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가상번호를 사용하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 7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고효율, 저비용의 정확하고 편리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부담에 대한 부담 감소**

기존에는 전 국민의 조사를 실시하려면 등록센서스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없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공공데이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에만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한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활용하기 쉬운 정보 획득 가능**

기존에는, 전 국민의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외가 있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센서스 실시로 국민 생활 인구·가구·주택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

기존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실시하면 약 2,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록센서스 실시하면 약 1,300억원만 소요됩니다.



## 8 현장조사도 실시하나요?

공공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는 전국 가구 가운데 20%를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일에 사활에 달한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전국 가구의 20%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요~!”

### 현장조사, 표본조사의 사설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표본조사	사설조사
목적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 -조사대상: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득, 출구 절차 등	접근이 어려운 거주하는 자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대상	전국 가구 20%	가난, 노인양육환자, 보육필요 등 사설조사
조사 기간	2015.11.1~11.15 (현장조사: 10.22~10.30)	2015.11.1~11.15
조사 방법	면담조사, 방문면담조사	방문면담조사

## 9 다른나라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나요?

2015년 전후로 공공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국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시 국가 현황

2006년 20개국 (17개국)	영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2014년 25개국 (23개국)	영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남아프리카,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대한민국

출처: OECD(2014년 11월)

## 10 2015 등록센서스 도입,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등록센서스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래는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지의 거주자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아직 거주지의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은 분은 결합 주민센터에서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합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주민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할 수 없는 신고,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현장조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숫자로 알아보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 첫 번째 통계조사인 2015년 11월에 실시합니다.



가구·주택·지역·세대 등 통계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주민등록, 전세금 대장 등 23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15년에 도입되는 등록센서스를 통해 1,400만 건의 국민생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계작성 업무 약 20%가량의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통계서비스는 약 1,200만 건의 출생입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 국외에 대해서는 출생이 없는 전입자를 상반으로 하는 전입자에게만 전입신고(이전) 참여가 인기 예상됩니다.

각회차간 협력을 통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신규등록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 최 인 범 행정통계과

(회사 방문 조사) 통계조사원 K씨는 통계조사를 위해 H회사를 방문하여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 직원을 만나 물어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응답을 회피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니 알려줄 수 없다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구 방문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 학력, 나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C아파트를 찾아 갔으나 아파트 현관부터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현관문을 통과하였어도 해당 가구가 맞벌이 부부거나 혼자 사는 경우 비어있어 통계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 현장조사의 어려움! 행정자료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회사나 가구를 방문하여 통계조사를 할 경우, 응답기피, 부실 응답, 응답자 부재 등 현장조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응답자는 응답을 기피하거나 부실한 대답을 하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직접 방문을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확한 통계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방문조사 중심의 통계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통계청이 선도적으로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맞춤형 신규통계 5종을 개발하였다!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규통계 5종 개발

국세청의 국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근로일자리통계, 귀농인통계, 주택소유통계,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기업생멸통계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규통계 중 하나인 귀농인통계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30세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 ■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현황

통계명칭	활용 행정자료	주요 내용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4대 보험, 과세자료 등 9종	지속일자리, 신규·대체일자리
귀농인통계	주민등록, 농업경영체자료 등 4종	귀농 인구·가구, 영농 현황
기업생멸 행정통계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 등 5종	활동·신생·소멸 기업체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건축물대장, 주택공시자료 등 3종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 등 5종	영리법인 기업체 수, 재무항목 등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규통계 5종을 개발하였다!!



통계청

인공위성을 이용한 경지총조사!

예산절감과 기간단축은 물론

유능한 통계청의 노고를 빛여주는

예입니다.



##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유능한 정부의 업무 다이어트, 아리랑 위성을 활용한 슬림한 경지총조사

\* 최 기 영 농어업통계과

지적도와 조사표를 들고 논, 밭을 헤매던 통계 새내기, 'K' 주무관. 한 어르신 질문을 받는다.

어르신 : “어이, 자네 지금 뭐하는가? 어디, 땅이라도 사게?”

K주무관 : “네, 어르신. 논, 밭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 “뭐시여? 통계? 그럼 이 넓은 땅을 전부 조사해?”

K주무관 : “네...”

어르신 : “어이, 젊은 친구,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공부 좀 더 해서 다른 일  
알아보지 그래?”

## 이 넓은 땅을 조사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 한다구요?

보기에 따라 무지막지해 보이는 일일지 모른다. 전국의 ‘통계’ 주무관들의 노력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186만 ha의 경지가 조사된다. 우리는

이를 경지총조사라 부른다. 이 결과로 93만 1천여 경지모집단이 구축되었고 여기서 뽑은 2만 6천여 표본조사구에서 우리는 해마다 경지면적이며, 벼와 사과 등의 재배면적이며, 쌀, 무, 배추 등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다.

경지총조사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마다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사다. 문제는 여기에 너무도 많은 시간, 인력,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연 400여 조사원이 필요하고 조사원 인건비 약 17억 원, 종이지적도 복사 비용 약 15억 원 등 총 조사기간 2년에 걸친 조사에 약 35억 원 소요된다. 이 예산은 현재가치로 약 64억 원 수준이다. 이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의 모든 농경지를 조사원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조사의 압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경지총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이제는 위성영상을 통해 현장조사 없이도 경지총조사가 가능합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8년부터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통계조사 방법을 연구 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성영상활용협의체에 가입하여 국가 위성영상을 무상으로 활용하였고,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의 협업으로 서로의 영상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은 이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방식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끝에 통계청은 2012년 경지면적조사에 현장조사를 배제하고 위성영상 판독만으로 통계를 공표 하는 쾌거를 얻는다.



통계청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경지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공위성,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아리랑 2호와 3호 위성의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현장 조사는 없다. 종이지도도 복사? 하지 않는다. 국토부의 전자지적도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GIS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다.

### 새로운 경지총조사 방식으로 세종시 경지면적을 신속·정확하게 제공!

새로운 경지총조사의 슬림한 변신!

조사기간 50% 단축(2년 → 1년), 총 예산 1/6로 절감(64억 → 11억)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지총조사의 성과다. 그야말로 ‘비만형’ 경지총조사가 정부 3.0 다이어트를 통해 ‘슬림한’ 경지총조사가 된 것이다. 슬림한 경지총조사는 현실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처한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존 연기군과 인근 시군의 일부 지역이 편입하면서 탄생한 이 행정 중심복합도시의 농업통계를 만들어내려면 과거방식으로는 2017년 2월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기다리지 않았다. 슬림하고 빨라진 경지총조사를 세종시 출범 즉시 적용시켰다. 세종시 경지모집단과 표본을 구축한 통계청은 2013년부터 세종시 경지면적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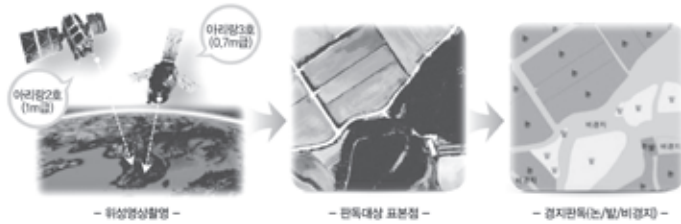
통계청식 정부3.0 업무다이어트로 탄생한 ‘슬림한 경지총조사’. 앞으로도 통계청은 유능한 정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정부 3.0 기반 농업통계 작성체계 구축



### ※ 원격탐사(RS)란?

실제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대상체의 정보를 추출해 내는 기법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경지면적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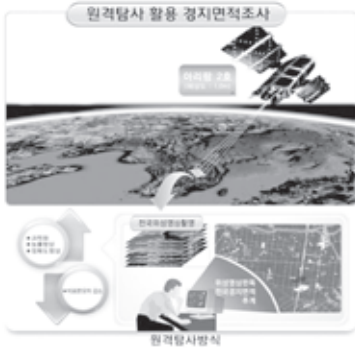
※ 전수판독을 통한 세종시 경지정보 추출



이투데이

2013년 02월 28일(목) 경제

## 인공위성으로 작성한 통계 “보다 정확해졌네” 통계청, 위성 활용 ‘2012년 경지면적’ 첫 발표



▲자료=통계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조사한 첫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008년부터 통계조사방법의 과학화를 추진해 온 첫 결과물이다. 이 같은 조사방법의 도입으로 전보다 통계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 성공적으로 발사한 우리나라 위성 아리랑 2호를 처음으로 활용해 조사한 네년 경지면적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지역의 위성영상을 관측해 조사하는 '원격탐사'(Romote Sens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각 2헥타르 단위로 2만6000개의 조사구를 정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던 과거의 경지조사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갔다. 위성을 통해 관측하게 되면서 표본의 수는 4만 2602개로 늘었고 각 표본의 규모도 각 4헥타르로 커졌다.

통계청 김봉철 농업통계과장은 “각 경지가 논인지 밭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인데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1미터 대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도 원격탐사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탐사 방식으로 조사한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73만헥타르였다. 전국 경지면적 가운데 논 면적은 96만6000헥타르, 밭 면적은 76만4000헥타르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30만 9000헥타르의 경지가 분포해 우리나라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28만9000헥타르, 충남 23만5000헥타르 순이었다. 논 면적은 전남이, 밭 면적은 경북이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가운데는 해남군의 경지면적이 3만5000헥타르로 가장 넓었다. 논 면적은 김제시가 2만3000 헥타르로 가장 넓고 밭 면적은 제주시가 3만2000헥타르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기획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시스템!

『나라통계시스템』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국가통계 생산의 표준화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김우열 정보화기획과



K도 통계담당 A씨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도내사회 조사를 올해 당장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던 A씨에게 가장 걱정인 부분은 자료 수집과 점검, 분석과 집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눈앞에 닥친 업무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던 A씨는 도내 한 시군구의 통계담당으로부터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나라통계시스템은 조사원채용, 입력, 내검, 집계표 생성, KOSIS 공표까지 국가통계 표준화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며 게다가 자체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쁜 마음에 A씨는 바로 담당부서에 알아보았지만, 담당자로부터 이미 수요가 마감되어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나라통계마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낙담하고 있던 A씨는 며칠이 지난 뒤,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다. 천만다행으로 나라통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이후 나라통계시스템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 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과 함께 대국민서비스를 앞둔 상황이다. 나라통계 시스템을 통해 조사부터 집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만족한 A씨는 앞으로도 나라통계를 통해 K도 사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입안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정확한 통계’, 현재의 열악한 기반에서 벗어나,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나라통계시스템』 이용으로 쉽고, 빠르게 정확한 통계를 만들 수 있으며 기관 간 통계정보를 공유, 연계할 수 있어 통계생산과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만들기 어려운 통계, 무엇보다 신뢰가 기본이죠!

우리나라는 380여개 통계 작성기관이 930여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과연,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일까? 201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별 통계담당자의 지식정도에 따라 통계작성 프로세스 준수 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특히, 통계기획 및 분석 과정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통계의 중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 일반 국민들도 새로운 통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최근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통계를 적시에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소 해소될 예정이다. 『나라통계시스템』이란, 통계 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시스템을 말한다.

■ 국가 통계 작성 절차



신뢰받는 통계로 통하는 대한민국!!

정확한 통계정보를 활용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분석이 기초가 될 때 비로소 올바른 국가정책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통계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현재 930여종 국가통계 중 각 기관업무와 연계된 보고, 가공통계를 제외한 500여종의 조사, 보고통계(지방자치단체가 『나라통계시스템』이라는 단일 채널을 통해 생산되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는 함께 참조되고, 공유될 수 있다. 또한,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통계생산시스템이 없는 통계작성기관의 열악한 통계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통계는 표준 통계생산 업무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만들어지므로 통계자료의 정확도 제고와 더불어 신속한 통계 생산체계가 형성되어 통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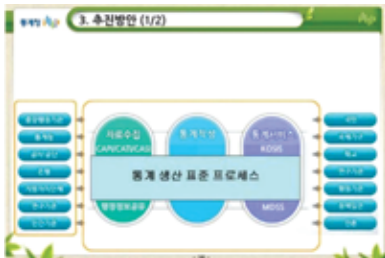
■ 부처간 협업 및 통합기반의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활용



향후 통계청에서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활용 확대와 함께 통계생산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것이다.



## 해외 벤치마킹 대상인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우리나라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 통계행정을 구현하는 통계청. 통계청은 국가 주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국가정책과 기업의 전략 수립에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조사정보만도 380개 기관서 조사된 510종에 이른다. 2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인구주택총조사도 이 중 하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방대한 규모다.

과거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협회·단체, 공사·공단, 민간 리서치기업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서 조사된 정보를 수작업으로 취합했다.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조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 종류도 많아지고 정보량도 급증해 수작업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 극복을 위해 통계청은 국가 표준인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이라는 칼을 뽑았다.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고민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남자인데 출산 경력이 있거나 20세 미만인데 기혼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오류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국가통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간 방문객 500만명이 넘는 국가통계포털(KOSIS)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배경이다. 김우열 통계청 사무관은 "각 기관과 기업에서 생산한 통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준화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다"고 말했다.

2010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초기시스템 구축은 삼성 SDS·대우 정보시스템이, 2차부터는 대우정보시스템이 단독으로 수행했다. 2011년 1차 사업으로 37개 기관에서 생산되는 47종을 적용했다. 통계생산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통계작성기관이 하나의 통계정보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도록 했다.

다음해인 2012년 3월 시범가동을 거쳐 8월 정식 가동했다. 조사정보를 확대 적용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병행 추진했다. 2012년에는 110개 기관 136종을, 2013년에는 106개 기관 135종을 추가 적용했다. 올해는 34개 기관 47종으로 추가 확대한다. 김 사무관은 "현재까지 전체 적용 대상인 510종 중 318종을 완료했다"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0개가 넘는 다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변화관리도 쉽지 않았다. 기관과 기업의 실무자들은 업무가 변하는 것에 많은 거부감이 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러 기관과 기업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도 운영하고 협회·단체를 찾아가 수시로 상황보고도 했다.

현재 나라통계시스템은 정확도와 편리성이 높아져 통계청 직원뿐 아니라 기관과 기업의 실무담당자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3.91이 나왔다. 개별적으로 구축할 때 소비되는 예산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상당부분 절감됐다.

올해부터는 전자정부 수출의 선봉대 역할도 한다. 이미 2012년 카자흐스탄 정부와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란·이라크·러오스·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다수 국가가 통계청을 방문, 나라통계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첫걸음,  
통계청의 「지역통계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지역통계 무료컨설팅으로 지자체 발전전략 수립 지원

\* 최 봉 수 조사기획과

시도 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개선·개발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우셨죠?

자치단체 : “지역통계컨설팅이게 뭐죠? 통계컨설팅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네요?”

통계청 : “그렇죠?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계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자치단체 : “그게.. 현 우리 통계조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단순 통계자료 수집 등 경상 작업만 하기도 빠듯해서요”

통계청 : “그러한 자치단체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전담하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통계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 “그렇다면, 보통 업무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데 저희는 그럴만한 여력이 현재로는 없는데요.”

통계청 :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에서 자치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같이 발전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일이고 통계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진행되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단체 : “그럼 원하면 무료로 통계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가요?”

통계청 : “네. 매년 연말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때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 등 간략한 사업계획만 제출하시면 저희가 매년 2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통계컨설팅을 해드리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통계조직 등으로 인해 지역통계의 개선이나 개발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1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희망하는 시도에 대해 매년 통계컨설팅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중장기 지역통계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통계청이 도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빠듯한 인력, 예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계업무만을 기계적으로 진행하여 왔지만, 통계청에서 지역통계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도를 통해 지역 통계발전전략을 새로이 수립하여 지역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통계컨설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마음 먹었다.

통계청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통계인프라 등으로 인해 새로이 개선·개발 등 통계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도를 못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통계컨설팅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등 5개 광역시도에서 통계컨설팅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전라북도가 컨설팅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도와 울산시가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통계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인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역 통계컨설팅 프로세스별 세부 업무 수행 절차



## 아주경제

2013년 09월 26일(목) 사회

## 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4시 신청사 집무실에서 박형수 통계청장, 시 행정국장과 정보화기획단장, 외부 통계전문가 등 14명과 함께 '서울시 통계 중기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숙의를 갖는다.

이번 숙의는 서울시가 수립 중인 동계 중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통계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통계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마련됐다. 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서울통계 거버넌스 발전 △서울 경쟁력 강화 △서울 특화통계 확충 △서울다운 통계서비스 △통계인프라강화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전민일보

2014년 03월 17일(월) 경제

## 통계청 전북도 지역맞춤형 통계개발 컨설팅

통계청이 전북도의 맞춤형 통계개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박형수 통계청장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북도 김완주 도지사 와 만나 전북도 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6월까지 실시되는 전북도 통계컨설팅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관 장의 통계인식 및 전북도의 통계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통계 컨설팅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지자체의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중장 기 통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별 대표통계, 업무관련 행정통계 등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부3.0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자료 관리 및 활용방안도 제시한다.

임신,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등계지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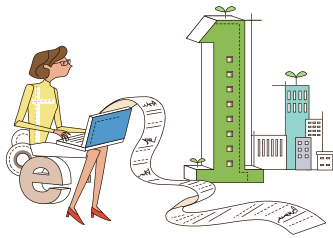


##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일·가정 양립지표」를 한 곳에서!

- 여성의 경력단절없는 커리어를 위하여..... -

\* 김 윤 성 사회통계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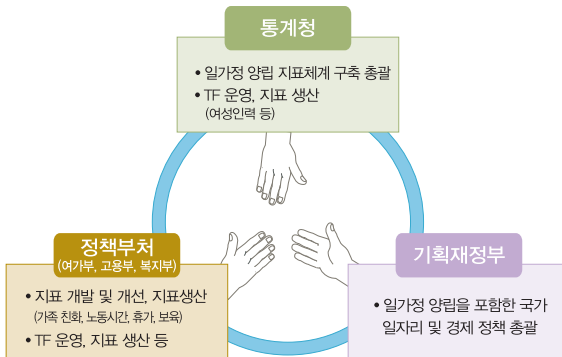
올해 43세인 A씨는 출산 후 일을 그만 둔 여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 시설 현황, 가사노동시간, 여성의 고용률 등 관련 통계를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런 마음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관련된 통계 자료를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홈페이지를 하루 종일 검색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몇 개의 관련 통계를 찾는 데에도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니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전에 이미 힘이 다 빠진 느낌.....그렇다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각 기관에 산재한 통계지표를 한 곳에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여러 부처에서 보육시설현황, 여성 고용률 등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통계를 작성해 왔다. 각 부처에서 작성한 통계는 부처별로 관리 및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관련 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찾아가며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그 동안 일·가정 양립 지원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각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작성되고 있는 관련통계를 지표체계로 구축하여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일·가정양립 지표의 지표정의 및 구성, 신규지표 개발 등 부처간 이견, 자료의 정확성 등의 이유로 통합추진이 중단되어 국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지표 구축

이에 통계청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 하여 정책이슈로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TF 구성 및 정기회의, 행정자료 공유 등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지표선정 및 구성, 신규지표 작성을 위한 고용보험 DB 자료 공유 등 부처간 이견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4차례의 TF회의와 외부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기관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법기관 등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결과 부처별 산재되어 있던 각종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단일창구로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접근성, 편의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 일·가정 양립지표 통합서비스

이번에 구축된 일·가정양립 지표체계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이후 재취업과 관련되는 여성고용확대 정책의 정책수혜자 지원과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제공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표체계 구축과 단일창구 통합서비스를 통해 통계의 정책활용도와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구성된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체계는 10월31일 부터 국정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 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가정 양립 통계지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영상회의~!

업무파트너와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

## 영상회의로 얼굴 보고, 정도 듣고, 일도 늘릴

\* 김봉례·이정훈 운영지원과

동북지방통계청 소속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무관 H씨는 잦은 출장으로 고민이다. 가뜰이나 넓은 조사관할지역에 현장 조사할 시간도 촉박한데, 조사업무 특성상 잦은 교육, 회의, 업무전달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란 정해진 기간에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기 일쑤다.

### 대면회의대신 영상회의로 행정의 효율 증진

통계청은 2013년 영상회의의 활용에 앞장선 바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545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누적 회의 참가인원이 1,815명(13년 말 기준 통계청 정원 2,234)에 이르렀다. 2014년 현재 통계청은 영상회의를 통계행정 효율화와 직원간 의사소통 강화의 매개체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업무 파트너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역시 현장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5개 지방청 및 49개 사무소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조사현장과 관리부서간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이 항상 시급한 형편이었다. 조사기간은 한정되어있고 해당 조사기간에 업무 전달이나 회의 등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이 겹치면 조사담당자는 시간을 쪼개 출장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행정협업시스템”의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회의는 보안상 ‘행정망\*전용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통계청은 본청과 개발원을 제외한 55개 소속기관이 ‘행정망-상용인터넷 공용 PC’로 업무를 수행중이어서 영상회의 활용이 어려웠다.

\* 행정업무 전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상용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회의 활용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통계청은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결국 국가정보원이 요구한 보안조치를 수용하고, 각 지방청 및 사무소에 영상회의 전용 행정망PC를 총 53좌석을 설치하는 등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3.5월 통계청은 “소속 전기관 영상회의 활용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본격적인 영상회의 활용에 나섰다.

2013.7월에는 5개 지방청별 영상회의를 통해 소속기관에 대한 영상회의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처음 대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들 낯설어 하였으나, 한 번 두 번 영상회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그 편리함에 공감하는 직원이 늘기 시작했다. 결국 통계청은 2013년 총 545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누적 회의 참가인원이 1,815명에 이르게 된다. 또한, 같은 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행정부로부터 영상회의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명실공히 영상회의 활용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한결 편리해진 영상회의

2014년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행정망-상용인터넷 공용 PC’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부처간 영상회의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통계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전 직원 나라e음 영상회의 활용을 위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공통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를 통한 자동 접속 작업을 완료하여 더욱 편리한 영상회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영상회의를 통한 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정확한 통계 생산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통계청장-지방통계청장 간 영상회의 중 〉

#### 이데일리

2013년 05월 13일(월) 정혜

#### 통계청, 7월까지 순기관에 영상회의 환경 구축

- 2014년부터 영상회의 활용 목표

[세종=이데일리 유종성 기자] 통계청은 오는 7월까지 통계청 본부와 54개 소속기관(6개지방청, 49개 사무소) 등 전 기관에 영상 전용회의실(공간)과 전용 PC 설치 등 영상회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내 협업시스템 강화'라는 국정과제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오는 8월에는 통계청 전 직원(3150명)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사전테스트 및 문제점 보완 후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2014년부터는 영상회의를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은 영상회의 진행과정 및 효과 등을 지켜본 뒤, 공동조사 등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타 행정기관 등과도 시스템 공유를 통해 활용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수집하는

정확하고 현실성있는

물가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

빅데이터를 통한  
물가정보 생산

\* 황 영 자 조사시스템관리과

공무원 A씨는 경제부처에서 물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몇 달째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물가정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실리고 있다.

“주부들은 장을 보기가 겁난다. 감자나 양파 몇 개를 시장바구니에 담아도 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몇 달째 안정돼 있다는 통계를 보고 ‘도저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A씨는 피부에 와 닿는 물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을텐데 라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중 '14. 1.7일자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물가정보를 일일단위로!」 기사를 확인하고, A씨는 최근 고민하고 있는 돼지고기 물가 정책에 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일일온라인물가지수를 확인해 보니 월 초부터 꾸준히 돼지고기 물가가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선제적으로 돼지고기 방출물량을 늘려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 인터넷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만든 일일 온라인물가지수

현재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481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37개 주요도시 점포를 방문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는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특정 품목의 가격변동과는 차이가 있어 소비자는 장바구니 물가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월 단위로 발표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예측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99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가격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일일 단위 물가지수 작성을 시도하였으며, 이 온라인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의성 있는 일단위의 물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 과정



**1단계**  
수집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웹 문서를 수집

**2단계**  
파싱(Parsing)으로 수집된 상품 판매 웹 문서에서 가격 정보 등 원하는 정보를 추출

**3단계**  
저장으로 추출된 정보를 하둡 분산파일 시스템(HDFS)에 저장

**4단계**  
QC(품질제어)로 온라인 물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

**5단계**  
지수산출로 품질이 확인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물가지수 산출

**6단계**  
시각화로 산출된 온라인 물가지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화면에 표시

경제정책 부서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일일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가격변동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서는 향후 현장조사 방식의 월단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보조지표로서 온라인일일물가지수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월단위 물가지수와 일단위 온라인물가지수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가격데이터는 개방하여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활성화하고 분석된 지식은 축적하여 상품 기획, 생산 및 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 02월 17일(월) 경제

## 인터넷 가격수집 ‘빅 데이터’로 물가통계 활용

통계청은 자체 보유 물가정보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융합한 온라인 물가작성 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방대한 가격 관련 ‘빅 데이터’를 매일 수집해 소비자물가와 관련한 신속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개발한 물가통계 작성 프로젝트(BPP)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시스템 운영으로 일일 물가지수 개발과 물가 관련 보조자료 생산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했다.

통계청은 안행부와 공동으로 일일 이동인구 분석을 통한 인구·교통정책 수립 지원사업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01월 07일(화) 종합

##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앞으로 국가 정책수립, 대국민 서비스(복지·창업지원) 및 사회현안 대응(치안·사이버 공격) 등 국정운영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고 공공·민간의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7년까지 97개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추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안행부·미래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된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2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1년내 완료된 여가부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의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된다.

또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12구축)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개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추진전략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과 현안해결을 지원할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처리·저장 등 기초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 3.0의 핵심인 국민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중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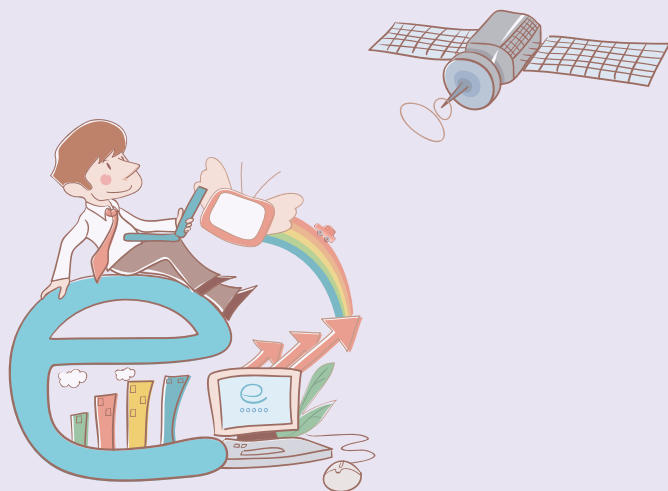
# 서비스 정부

service government!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범정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실현

\* 한 동 철 정보서비스팀

S대학교 K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질병유형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수 : “김군 내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성인들 만성질환 현황과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보게. 내가 알기로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참 암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더 좋겠군”

학생 : “네. 그럼 국립암센터 자료도 필요하겠군요.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김군은 우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부터 검색하고 담당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자료 뿐 아니라 다른 관련 자료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젠 통계청에서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하시고자 할 때 각 부처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일일이 찾아다니기 번거롭고, 찾았더라도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서 불편했다.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보세요

이전에는 필요한 자료가 생길 때마다 해당 통계작성기관을 찾아야 하고, 담당자와 통화 후 자료수집 절차를 밟아 제공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3개년(2014년~2016년)에 걸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연계를 떠나, 자료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2차자료 생성 및 서비스수수료 개선 등 마이크로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리고, 자료제공시에는 개인이나 단체 등 응답자 식별정보를 철저히 제거하고 통계적 비밀보호기법(Masking)을 적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위한 제도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비밀보호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성 중에 있다. 앞으로도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건수



아이뉴스 24

2013년 03월 07일(목)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 마이크로데이터 무상 제공

통계청(청장 우기중)은 7일부터 지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11개 시리즈) 인구주택총조사 1% 마이크로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민의 통계 자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http://mdss.kostat.go.kr/mdssexs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통계패키지를 사용하면 항목간 연계

분석이 가능해 통계분석 연구와 교육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 교육정도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국내 이용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후, 순차적으로 국외 이용자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외 이용자는 오는 2014년부터 미국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스템인 IPU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원 홈페이지 (kssc.kostat.go.kr)에서

검색과 상담을 통해

쉽게 통계원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死因) 분류 검색과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 정 현 숙 통계기준과

대전광역시에 사는 S씨는 학습지교사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산재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학습지 교사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가입이 안된다는 회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통계청 직원으로부터 자영업 중에서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일부 직업의 경우 산재보험이 기관과 개인이 공동부담(5:5)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입이 가능한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에 문의를 하게 된 송씨는 학습지교사도 산재보험이 공동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정식으로 산재보험가입 요구를 할 수 있었다.

통계분류는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통계생산·작성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이 통계분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통계분류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인·허가신고서 작성에도, 구인·구직 안내기준 및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에도, 병원진단서에도 통계분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각종 통계분류~통계분류포털에서 검색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자.

###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지만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통계분류

통계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각종 인·허가신고서 작성, 교통사고 보상액 결정 기준,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작성 등 행정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표준분류 코드검색 기능만 제공하여 분류 관련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보 검색이 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화를 통한 문의는 정확한 분류코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생산 공정, 진단서 등)를 첨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문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통계분류 검색, 온라인 1:1 상담이 가능한 통계분류포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분류포털 사이트를 2014년 7월 1일 오픈했다. 그동안 표준분류 위주의 정보검색을 서비스하는 기능에서 국내·외 통계분류 검색도 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금한 사항을 1:1로 온라인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류의 활용 예를 들면, 산업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공단입주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과세·비과세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분류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액이 결정되고,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국내·외 통계분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통계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표준분류 이외의 분류에 대해서도 활용도에 따라 온라인 상담센터를 확대·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통계분류포털 〉



〈 표준분류 상담센터 〉

출생부터 사랑까지

생애주기별 통계분석 자료로

실생활에서 공감, 활용해요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생애주기별 통계분석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 박 시 내 동향분석실

통계는 어렵다? 그렇지 않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알기 쉽게 풀어쓴 통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인 H양, 아이 둘의 경력단절 여성인 전업주부인 P씨는 생애주기별 통계분석 자료에 어떻게 공감하고, 활용하였는지 한번 알아보까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인 H양,

1991년에 출생하여 올해 23살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H양, 요즘 취업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중간에 휴학이나 남들 다가는 어학연수도 가정 형편 상 가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벌써 졸업반이다. 지금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처럼 한 학기 유예를 할까 고민 중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생 8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고...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살고 있는 H양은 이 자료를 보고, 많은 공감을 하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으나,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으로 오히려 자립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위안을 삼는다. 자료를 보니, 나같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청년층 중 3.8%나 된다니.... 쾡쾡 얼어붙은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형 재학인구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아, 이게 나만의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니, 한층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절망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여성 청년층의 전문·관리직 진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85년생 중 전문·관리직은 41.3%나 된다고 한다. 나도 곧 그렇게 될 수 있겠지? H양,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아이 둘에 전업주부인 P씨,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서울에 있는 모 조사회사에 근무하다가 둘째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P씨.. 1976년생으로 대학 3학년에 IMF를 겪고도 취업시장에 당당히 입사했던 그녀.. 결혼 후 높은 집값에 대출문제로 아이 갖기를 미루다가 34살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복직 후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던 중 시어머님이 큰 병으로 수술을 하시고, 더 이상 아이를 맡아줄 형편이 안 되었다. 시부모님도 아프시고, 노산에 둘째문제를 고민하던 그녀는 덜컥 둘째를 갖고,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다. 직장생활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을 늦게 하여 2년 터울로 두 아이를 출산했다. 막상 집에 있고 보니, 두 아이의 양육비며 날로 치솟는 전세값에 시름이 깊다. 오늘은 우연히 TV를 보다가, 나의 이야기를 듣는다.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한 여성의 취업률이 낮다고... 나 같은 경력단절 여성이 많구나! 자녀 간 터울도 많이 단축되어 70년대생의 41.2%가 자녀의

터울이 2년 이하라고 한다. 게다가 서울의 결혼 10년차의 내 집 장만은 10명 중 3명 꼴이라니.... 그래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출없는 전세로 시작한 것에 큰 위안 삼는다. 한편 활동제약자 10명 중 1명은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님 생각이 난다. 충남 당진시에 사시는 시어머님은 곁에 사는 동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0대 여성의 취업률은 오히려 30대보다 높다고 하니, 나도 희망을 갖고, 재취업에 도전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혜택을 아이들 둘 다 받고 있으니, 이것만해도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이나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개인의 생애주기를 유형화하면,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대략 구분될 수 있다.

#### ■ 생애주기 단계



출처: '14년 맞춤형 서비스 추진계획  
(14년. 1. 22. 안행부)

통계청에서는 인구·사회통계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고, 각 주기별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이용자 친화적이고, 정책 접근성이 높은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계분석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분석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국민일보

2014년 11월 19일(수) 종합

1990년대 이후 출생 8명 중 1명 '한부모'와 산다

통계청 인구주택 자료 분석

이혼 가정 등의 증가로 19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10명 중 1~1.5명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부모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10명 중 3명 이상은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은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표본자료를 바탕으로 가족형성, 학업·일, 주거, 통근, 활동제한 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혼이 늘고 주말부부도 많아지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출생한 이들 중 한부모 가구에 속한 비중은 11.0~14.3%에 달했다. 1956~1970년생은 8%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3%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면서 '재학·비취업' 청년층(15~34세) 비중은 2000년 29.4%에서 2010년 32.9%까지 늘어났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까지 하는 청년층도 100명 중 3~4명꼴(3.4%)로 늘어났다. 10년 전에는 2.2%에 그쳤다. 반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비재학·비취업' 인구의 비중은 26.6%에서 19.9%로 6.7% 포인트 감소했다.

초혼 연령이 늘어나고 아이를 1~2명 이하

로 낳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기간은 대폭 줄었다. 1926~1930년생의 기혼여성은 평균 14.2년간 아이를 낳았던 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서는 4년 이하로 낮아졌다. 1976~1980년생은 평균 3.3년간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결혼 1년 미만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26.1% 수준이었다. 자가 보유 비중은 결혼 연차가 늘수록 증가해 결혼 10년차에는 48.3%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내집 마련'은 크게 어려워졌다. 서울에서 결혼 10년 이내에 자기 집을 가진 경우는 29.2%에 불과했고, 경기도도 35.3%에 그쳤다. 반면 광주와 전북은 52.3%, 50.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거주자는 평균 통근시간도 길었다. 전국 평균 통근 소요시간이 임금 근로자의 경우 33.0분인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통근자는 1시간 이상이 26~28%에 달했다.

서울신문

2014년 11월 19일(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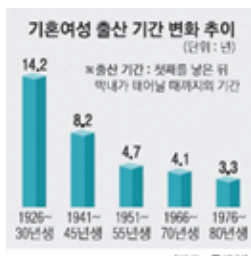
“결혼 늦고 키우기 힘들어”…출산 기간 딱 3년으로 끝~

50년 새 11년이나 단축  
결혼10년 차도 50%가 '셋방'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 3년 동안만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내놓는 기간이 11년 줄었다. 또 결혼 10년 차가 돼도 절반 이상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기간은 1926~1930년생(84~88세)의 경우 14.2년이었던지 1976~1980년생(34~38세)은 3.3년에 불과했다. 출산 기간은 첫째를 낳은 뒤 막내가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전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첫째를 낳고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예기다. 1926~1940년생(74~88세) 여성은 출산 기간이 9년 이상인 경우가 71.4%



였지만 1971~1980년생(34~43세)에서는 4년 이하가 75.8%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줄었다. 초혼 연령은 1926~1930년생의 경우 남성 24.9세, 여성 20.4세였지만 1976~1980년생에서는

각각 28.1세, 26.3세로 올랐다. 민생통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은 “출생아 감소, 초혼 연령 상승, 가족계획 사업 등으로 여성의 평균 출산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 연차별로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는 26.1%에 불과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30.8%, 5년 차에 41.8% 등으로 늘어나지만 10년 차가 돼도 48.3%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집을 갖고 있는 부부 비중은 결혼 20년 차 56.4%, 30년 차 66.7% 등으로 결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했다.

신혼부부의 50.1%는 전세로, 21.1%는 월세로 신집살림을 각각 시작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내 집 마련이 역시 어려웠다. 수도권에 사는 결혼 10년 차 이하 부부 가운데 자가(自家) 비중은 29.2%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세 비중은 52.8%로 가장 높았다.

朝鮮日報

2014년 11월 19일(수) 경제

## 결혼 10년차 중 ‘내집 장만 성공’ 절반도 안돼

결혼한 지 30년 지나도  
3가구 중 1가구는 無주택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가구는 채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결혼 10년차 가구 중에서 자가(自家) 거주 비중은 48.3%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결혼 1년 미만 가구 중에서는 자가 소유 비중이 26.1%, 결혼 30년차는 66.7%였다. 신혼부부 네 쌍 중 한 쌍꼴로 자가를 소유한 채로 가정을 꾸리지만, 결혼한지 30년이 지나도 무주택자인 가구가 세 가구 중 한 가구꼴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인 가구는 50.1%, 결혼 10년차는 29.3%, 30년차는 14.8%였다.

시·도별로 볼 때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두드러지게 어려웠다. 서울은 결혼 10년 이하 가구 중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29.2%로 가장 낮고, 전세 거주 비율은 52.8%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 중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52.3%)였고, 울산(51.3%)이 뒤를 이었다.

결혼 5년차 이하 가구와 대비해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가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순서대로 대구(7.2%포인트 상승), 경기(6.8%포인트 상승)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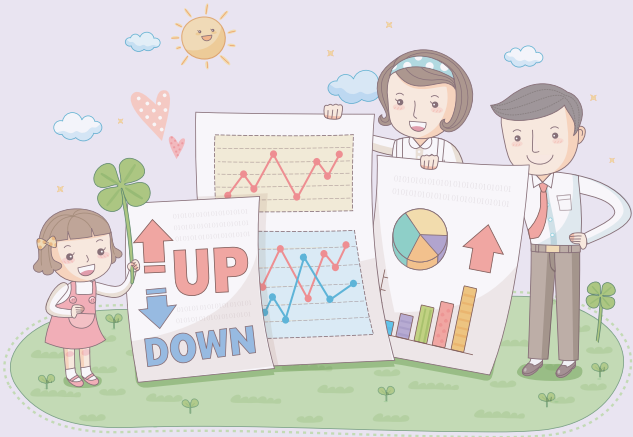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자료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재가공해 분석한 것이다.



응답의 차를 줄여

조사표질과 통계자료 표질을

향상시켜요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응답자에게 친숙한 조사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 박 현 정 동향분석실

전업주부인 A씨는 지난 봄에 「K 조사표 개선을 위한 인지면접 실험」에 참가하였다.

그전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해 본 적은 있지만 우연히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인지면접으로 조사표를 개선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험에 참가하던 날, 조사표 응답과정에서는 집에서 응답하듯이 혼자서 꼼꼼히 고민하며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작성을 마친 다음에는 이어서 인지면접관에게 조사항목에서 애매한 용어나 어려웠던 내용과 함께 조사표 디자인에 대한 선호 의견도 제공하였다. 처음엔 단순한 목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지만 조사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일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생생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통계청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번 조사에서는 훨씬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조사표가 만들어지겠다고 생각하였다.

### 조사표는 왜 중요할까요?

조사표는 대부분의 통계를 생산하는 도구이다. 가구와 사업체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문지이며 응답자와 직접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사표가 응답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면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용어, 항목의 배치, 디자인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여 응답자 중심에서 조사표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응답자 관점에서 소통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자.

최근들어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응답자기입방식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변화에 알맞게 통계청에서는 일부 조사표에 대해 응답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이전에 조사원면접용 조사표에서 응답자기입용 조사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조사표를 설계할 때 인지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응답자와 직접 소통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왔다. 통계청(통계개발원)에서는 2013년에 조사표실험실을 설립하여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응답자의 의견수렴, ‘시선추적시스템(eye-tracking system)’ 장치를 활용한 응답패턴 분석(조사표를 응시하는 응답자의 시선정보를 통해 조사표 응답과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확인) 등으로 조사표를 재설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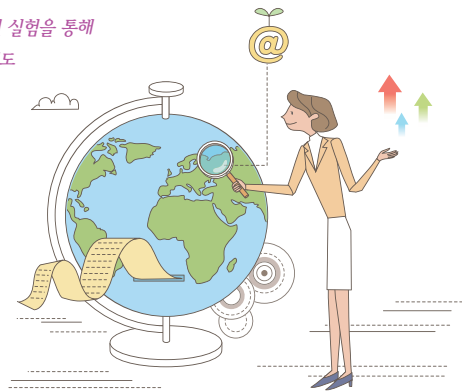


##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을 통해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정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응답자가 불편함 없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응답오차(response error)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시선추적 실험과 같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응답자의 시선정보를 분석하고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응답부담을 진단 함으로써 조사표의 기능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응답자에게 친숙한 조사표를 만들어 현장조사에 활용하면 응답오차를 줄임과 동시에, 응답부담도 동시에 낮출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조사품질과 통계자료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과  
시선추적 실험과 같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조사품질과 통계자료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표실험실 리플릿

주요 연구

○ 시선추적실험을 통한 조사표 디자인 연구 사례

조사표 1



조사표 2



동일한 내용에 대해 디자인만 달리한 두 가지 조사표 유형에 대한 시선추적실험 결과 유형 1에서 응답자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

\*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연구결과 참조

○ 연구목록

- 2012

  - 조사표 평가 방법론에 관한 최근 동향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설계 : 인지면접 테스트 결과
- 2013

  - 시선추적실험을 통한 인구주택총조사 자기기입식 종이조사표 연구
  - 반분조사 자료를 이용한 조사표 효과 분석
- 2014

  - 2014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테스트 : 인지기법 적용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표 평가
  - 사업제조사표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Questionnaire Design Lab** | 302-847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F  
TEL. 042-366-7308, 7309 FAX. 042-366-7317  
<http://sri.kostat.go.kr>

sri.kostat.go.kr

과학적인 조사표 설계 ——  
**조사표실험실**  
Questionnaire Design Lab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조사표 설계는 과학입니다."

"조사표 설계는 과학입니다."

의의

- 조사표는 **응답자와 통계 작성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는 **통계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연혁

- 2011 조사표 연구를 핵심과제로 선정(9월), 해외 실험실 벤치마킹
- 2012 전담팀 구성, 국내 실험실 벤치마킹, 실험실 구축 준비
- 2013 실험실 개소(5월), 시선추적장치 도입, 가구부문 조사표 연구
- 2014 인터넷조사표 연구, 사업체부문 조사표 연구로 확대

역할



과학적인 조사표 설계로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

구성 및 기능



실험참가 안내 ▶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인포그래픽!!!

읽는 통계에서 보는 통계로

접근성을 높였어요~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어려운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으로 보면 쉬워요!

\* 홍성옥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민원인 : “제가 지난 월요일 D일보 기사를 보고 전화드리는 건데요. 통계표가 복잡하고 기사내용이 어려워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담당 : “잠시만요. 음, 5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8이니까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했네요.”

민원인 : “그래요?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못 찾겠던데... 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전년동월대비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난 해 5월에 비해서 1.4% 올랐단 말이죠?”

민원담당 :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 : “용어도 생소하고, 통계표도 복잡하니 이해하기 어려워요...”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주제별 작성 주기에 따라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서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계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는 바로 ‘통계자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계를 어려워한다. 현장에서 땀흘려 작성한 자료이지만 이를 보는 통계청의 고객들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할 뿐더러 통계용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어려운 통계자료를 인포그래픽<sup>2)</sup>으로 제공, 국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 고객들이 통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의 보도자료 제공방식을 벗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통계자료의 핵심을 쉽게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재미있게 통계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통계자료의 공표였다.

2014년에 기획보도자료 포함 28건의 보도자료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언론사에 제공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

2)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ion)와 그래픽(Graphics)의 합성어로서 복잡한 수치나 글로 표현 되어있는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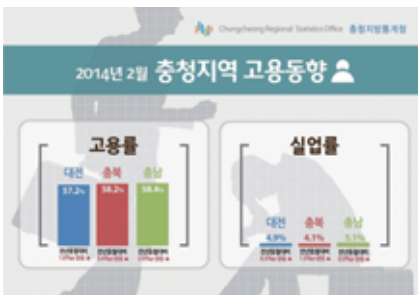
조사를 해보니 ‘만족한다’는 비율이 79.7%로 나타났으며, 인포그래픽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이해하기 쉽다’가 32.4%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포그래픽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한 인포그래픽 자료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통계정보로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연간기획보도자료(청소년 통계, 고령자 통계 등) 인포그래픽 제공



#### ■ 3대동향(소비자물가, 고용, 산업활동) 인포그래픽 제공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록된

맞춤형 등계정화지로

“우리 집 살림살이”를 관리해요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1년간 소득과 지출, 맞춤형 통계 정보지  
 “스마트한 우리 집 살림살이”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현 은 경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조사담당 :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간 써보시니 어떠세요?”

응답가구 : “처음에 가계부 쓸 땐 우리 집 지출만 너무 많다고 홍보면 어쩌나 싶고… 괜히 시간만 너무 많이 뺏기는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다른 집이랑 비교한 자료를 눈으로 보니까… 우리 집이 주류·담배 소비지출액도 작고, 통신비 지출액도 작더라고요.”

조사담당 : “그렇죠? 전국 가구랑 비교해보시면 오히려 적게 쓰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우리 집 살림살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좋으시죠?”

응답가구 : “네. 그리고 의외로 저희 집이 4월에 지출이 많았네요. 내년엔 미리 대비해서 계획적인 지출로 우리 집 살림을 알차게 꾸려야겠어요.”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는 1년 이상 매달 가계부를 성실히 작성해주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눈에 보는 스마트한 우리 집 살림살이” 맞춤형 통계정보지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부를 작성해주시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통계정보지를 활용하여 배포하였으나, 전월과 당월의 가계지출액 비중과 증감률(%) 자료에 국한되어 있고 딱딱한 내용구성과 다양한 정보 제공 부족으로 이를 받아 본 응답 가구의 호응은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 성실히 작성해 주신 가계부, 맞춤형 통계정보지로 돌려드립니다

이에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는 1년간 누적된 풍부한 가계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집 살림살이”를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찬 정보가 수록된 맞춤형 통계정보지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가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전국가구와의 지출항목별 금액 비교’, ‘전년 동월 지출항목별 금액 및 증감률’ 자료를 추가하고 ‘맞춤형 설명 자료 수록’ 등 만족도 향상과 지속적인 구독을 위한 자료 보완을 계속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개인 사생활 노출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가구 면접조사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는 연동 신규표본 1구역 「통계 응답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가계부 기입대상” 응답자에게 맞춤형 통계정보지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해 가계부 불응 13가구 중 6가구 설득에 성공, 회수율도 63.6%에서 79.8%로 16.2%p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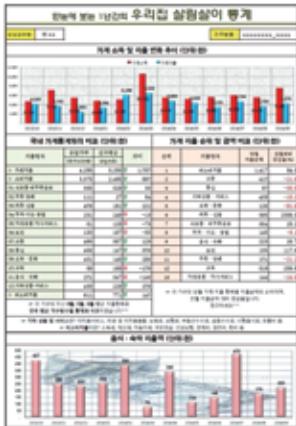
앞으로도 “한눈에 보는 스마트한 우리 집 살림살이” 제공을 통한 응답자 feed-back으로 조사환경개선과 통계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또한 응답자가 생활에 정말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진1. 통계응답자간담회 >



< 사진2. 가계부 기입지도 통계정보지 활용 >



< 그림1. 우리집 살림살이(7월) >



< 그림2.우리집 살림살이(8월) >

창의력을 쑥쑥!!

놀이 교육으로 조금 더 쉽게

통계에 다가가요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 |

# 소년, 소녀 통계를 만나다

\* 오 은 숙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교무담당 선생님 : “고래밥은 먹기만 했지 이렇게 과자로 그래프를 만들고, 통계를 가르칠 때 활용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통계교실 담당자 : “고래밥 통계 말고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서, 통계로 운동화 디자인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교무담당 선생님 : “그럼, 수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통계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통계교실 담당자 :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 공무원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재료 등 준비물도 저희가 모두 준비해 가구요.”

교무담당 선생님 :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되었네요. 그럼, 체험 참가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통계교실 담당자 :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한 학기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무담당 선생님 : “정말요? 시골학교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외부에서 진행되는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서 난감했는데 직접 찾아와서 교육까지 진행해 주신다니 정말 좋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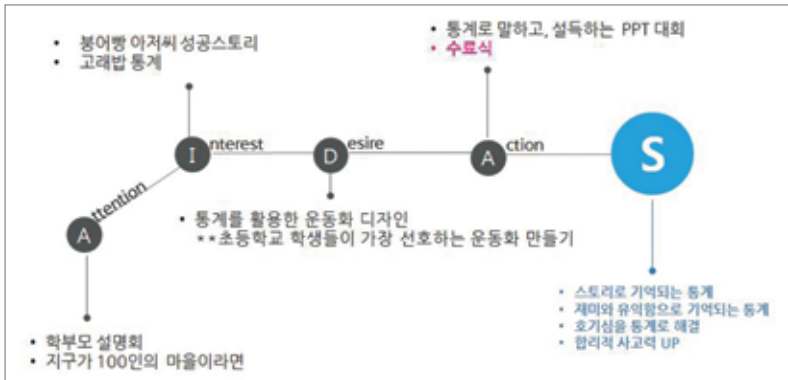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 시골 학교는 아이들의 창의체험 활동을 위해 대도시로 먼 거리 나들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병대 캠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으로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프로그램 부족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이후 ○○초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중 창의체험활동 교과목에 “찾아가는 어린이 통계교실” 프로그램으로 1학기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놀이 같은 교육, 교육 같은 놀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수학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궁금증을 스스로 통계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있다.

### 찾아가는 통계교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어린이 통계교실과 자유학기제를 위한 직업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체험 프로그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학교를 위해서 통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래밥 통계,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화 만들기, 소비자물가조사 체험 교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별도의 이동 없이

학교 내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Outreach(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맞춤형 강의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보령 사무소 관내에서만 7개 학교 5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직업·진로 체험, 정규교과 시간에 통계청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통계 교육 수업을 받고 있다. 이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문제 공유와 기관 역량 개방으로 도시와 시골간의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효율성 및 기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충청지방 통계청은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 어린이 통계교실 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위한 통계교실 운영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교육 내용	
「붕어빵 아저씨의 성공스토리」	<p>Animation으로 보는 통계 활용기 호기심에 통계를 더하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p>	
「고래밥 통계」	<p>고래밥 과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호기심 통계로 해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래밥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활용하기</li> <li>- 설문지 설계부터 그래프 그리기까지 전 과정 체험</li> <li>- 놀이수학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통계에 재미 더하기</li> </ul>	
「통계를 활용한 운동화 디자인하기」	<p>통계로 운동화 디자인</p> <p>운동화 회사의 디자이너라는 미션을 통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화 디자인하기</p> <p>통계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화 색깔, 모양, 무늬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디자인까지 하는 과정을 체험</p> <p>미술과 수학, 언어를 결합한 창의 융합 프로그램</p>	



## ■ 중학생을 위한 교육 운영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교육 내용	
<p>「소비자물가조사 체험 교실」</p>	<p>통계 공무원과 함께하는 1일 통계 체험 교실</p> <p>예비 통계직 9급 공무원이 되어서 소비자물가조사 및 보도자료 작성 체험하기</p> <p>통계직 공무원 1일 체험 및 소비자물가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p>	
<p>「자유학기제를 위한 찾아가는 직업 특강」</p>	<p>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특강</p> <p>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나라를 탐구하고, 국민들의 행복 양을 조사하는 통계직 공무원의 매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p>	

정확도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하여  
국민의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의 수익이 많을까? 편의점? 치킨점?

\* 이 의 규 산업통계과

창업을 꿈꾸고 있는 베이비부머 L씨 : 내 나이 50에 뭐라도 해야 하는 데, 사업 경험도 없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치킨점이 좋을까? 피자점이 좋을까?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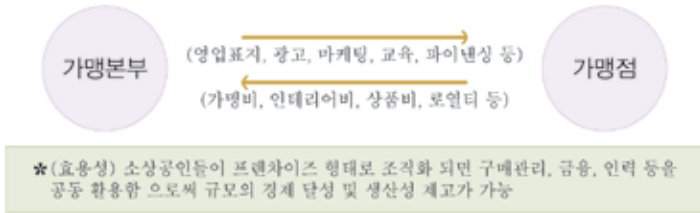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의 창업 1순위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이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지, 영업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죠? 통계청은 2013년부터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과 경영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럼 먼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가맹점이 가맹비, 인테리어비, 상품비, 로열티 등을 가맹본부에 투자하고 본부는 가맹점에 영업표지(브랜드명), 광고, 마케팅, 교육, 파이낸싱 등을 제공하여 구매관리, 금융,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생산성을 제공하는 형태의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국민경제에서 현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증대될 전망이다.

■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프랜차이즈 통계 생산

이에 따라 정부는 가맹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작년부터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상의 가맹본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사업체조사자료」(통계청), 「사업자 등록자료」(국세청) 등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모집단을 구축하고, 순수 가맹점(직영점 분리)의 업종별 현황과 경영실태에 대한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였다.

2012년 기준 첫 조사에서는 자동차 및 도매업이 월 평균 영업이익의 275만원으로 가장 높고 소매업이 월 평균 2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음식업은 월 189만원에 그쳤다. 한편, 자동차 정비소나 세차장, 미용실 등이 속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종이 월 255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여가업종의 영업이익은 월 119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랜차이즈통계 보도자료(2013.12.7.) 〉



〈 파리 바게뜨 중국 100호점(2014.8.8.) 〉

올해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까지 확대·조사하고, 서비스업 전문야(외식업, 편의점 등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로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업종별 통계를 확대 작성하여 자영업자 창업 및 정책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시로, 산업 중분류의 음식업을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피자, 치킨, 제과점으로 나누어 각 세부업종별 경영실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 ■ 업종별 프랜차이즈 통계 세분화



향후 새로 등장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모집단을 보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하여 국민의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2013년 04월 29일 (월)  
23면 유통/소매업

## 정부, 건전 프랜차이즈 육성 추진

### 첫 실태 조사...가맹점·매출액·종사자 파악 나라별 표준계약서 만들어 해외진출 돕기로

올해부터 통계청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별도로 떼어내 직접 실태를 조사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 진출 시 꼭 필요한 나라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하는 등 정부와 민간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금까지까지 '도소매업' 전체에 포함돼 있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올해부터 별도로 기본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본 통계 조사가 들어가는 항목은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몇 개 있는지, 각 사 매출액은 얼마인지,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이며 '가맹점 위

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처음 조사한 뒤 지난해 기본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며 매년 한 번씩 통계청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하던 도소매업 조사 모델 그대로 통계 과일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통계청 기본 조사 외에 가맹본부기 가맹점에서 받는 로열티 액수나 그 밖에 '건전 프랜차이즈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산업실태 조사는 산업부에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가 급속히 성장해왔음에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통계조사 구비해 있지 않아 가맹본부 목표를 막는 합리적인 규제안과 양질의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지

원칙 마련에 정부와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나라별 표준 계약서 양식도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업체들은 진출하고 싶은 국가가 있어도 현지 사정과 법 제도를 고려한 계약서를 만드는 것부터 번호사비 등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해외 진출을 위해 우량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찾았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과 연계된 '가사'인 '국가별 계약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원고도, 표준 계약서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3개국에 워싱·서비시·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3개씩 총 9개의 기본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업체별로 의견조치 약속도 최종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용현 기자**

한국경제

2013년 4월 27일 (일)  
13면 유통

## 치킨·제과 프랜차이즈 월 평균 189만원 벌어

### 통계청, 노랑방스·스크린골프는 119만원 이익률 10% 수준 - 손에 쥐는 돈 적어

서울 서해방 3호점 경복궁역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3)는 요즘 가게 문을 닫을 줄도 몰라 걱정하고 있다. 한 달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지만 이익 30%는 빼고, 소스 등 재료 일체할 공급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립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40%에서 월세 3000원, 인건비 20만~30만원, 주변 15만~20만 원의 임대, 전기·수도요금 등을 내면 남는 돈은 월 200만원 정도 남는다. 김씨는 "말에 '사장님'이 지 은행 대출이자와 세금을 내면 일한 직장인의 월급밖에 벌지 못한다"고 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맹 서비스업 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치킨 프랜차

이즈 가맹점은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평균 2963270원(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익은 평균 2963270원의 18.5%를 남겼다. 평균 매출액은 2000만원 안팎인 반면, 본사에 내는 재벌비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4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특정 Branchen이 높은 50~60대 손익으로 집계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키슈를 치킨을 제조 과정 들어 속한 속박 음식점은 평균 매출이 평균 2963270원(약 2400만원)이었던 반면 이익은 227만2000원(약 18%)에 불과했다.

노랑방스·스크린골프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여가업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연간 영업이익이 1833만원, 월 151만원에 불과했다.



가맹점이 속한 소기업은 연간 영업이익이 2500만원에 불과했다. 평균당 영달이익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는 문구점 등 유통도 대상과 저물지 신청 될까 붙어 속한 '자물차 및 판매업'이었다. 이들 업체가 평균 매출은 4억 5000만원(영업이익)이 3300만원 정도였다. 자동차 판매는 들어 속한 수리업도 영업이익이 314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대표 통계청 산업통계개발원은 "특히 '노랑방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영업 형태를 직접 운영 하고 그 외 지역을 가맹점 영구하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1~3위인 노랑방스(1점)가 171만5000개, 2위인 키슈(1점)가 171만5000개, 3위인 반달곰(1점)이 171만5000개, 4위인 다산이밥(1점)이 171만5000개, 5위인 노랑방스(2점)가 171만5000개, 6위인 반달곰(2점)이 171만5000개, 7위인 노랑방스(3점)가 171만5000개, 8위인 노랑방스(4점)가 171만5000개, 9위인 노랑방스(5점)가 171만5000개, 10위인 노랑방스(6점)가 171만5000개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맹 서비스업 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전국에 171만5000개, 종사자는 53만3000명이었다. 음식점업이 51만5597개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이 14만7071개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가맹점당 직원 수는 3.3명이었다.

한편 작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57754000개로 전년 대비 1.6% 늘었다. 종사자 수는 57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의 전체 매출은 143조8000억으로 2.3% 늘었고 사업체당 매출은 594500원(연평균 1.3% 증가)였다. **서용-김유진 기자** [seo@hankook.com](mailto:seo@hankook.com)

## 프랜차이즈 활성화대책 나온다.. 해외진출 중점 지원

산업부 “과당경쟁 등 단점 보완하고 지원책 담은 대책 연말까지 마련”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위주로 접근해온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 포화 내지 성숙기에 이른 내수시장에서 안정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진출로 새로운 성장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데도 과당경쟁, 무분별한 창업 등 갈등요인이 적지 않다”며 “문제를 해소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주목한 것은 창업과 고용 창출 등의 면에서 효과가 뚜렷해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기준 17만5000개, 종사자 규모는 57만3000명다. 매출액은 40조7683억원으로 가맹점당 매출액은 2억327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 매출까지 포함할 경우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등이 집계한 통계에서 2002년 가맹본부 포함 매출액이 41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2년 두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진 브랜드와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매력때문에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문제도 적지 않았다. 국내 한 금융기관은 지난 2012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60% 정도가 5년 미만의 영업기간을 갖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63%가 음식점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하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사업 안정성도 미흡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무리하게 모집하면서 가맹점 부실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당·출혈경쟁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짜기로 했다.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내수시장이 포화, 성숙기에 달한 만큼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활력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업체중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가진 SPC, 미스터피자 브랜드를 가진 MPK 등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출점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수시장과 관련 과당경쟁, 무분별한 확장은 지양되야 급속 규제를 풀어 안정성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상생협력모델 개발 등도 과제로 들어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활성화대책을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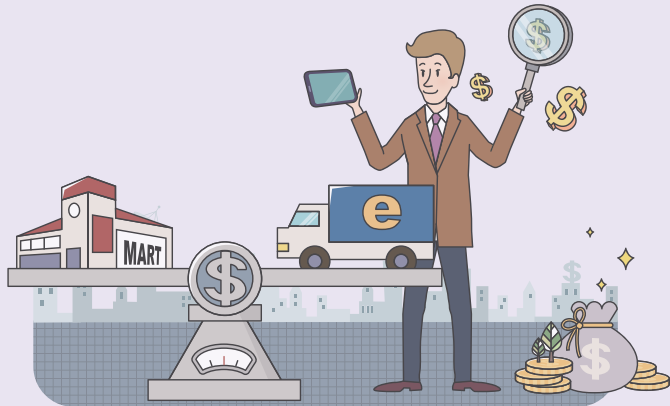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2-3년에 한번 꼴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역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 파이를 놓고 경쟁하는 국내시장의 문제를 해외 진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볼 것”이라며 “매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참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확도를 개방하고 빅데이터와 연계,

맞춤형 통계자료를 통해 통째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창업하기 좋은 곳, 빅데이터로 찾는다

\* 강 계 화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대구에 사는 A씨는 제1차 베이비부머(58년 개띠)이다. 2014. 6월 직장을 그만 두었지만 자녀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백수와 대학생 딸이 있다. 생계를 위해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당장 치킨집이라도 개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A씨는 창업 희망지역(칠곡 신시가지)을 관할하는 대구 북구청을 방문하여 소자본 창업 담당공무원과 상담 과정 중 먹는장사는 입지와 사장님 손맛만 맞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런 정보가 없는 A씨에게는 너무나 막연한 현실로 느껴졌다.

담당공무원에게 창업에 필요한 통계적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창업의 적지분석 등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이는 지인으로 부터 통계청의 GIS서비스와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참고하라는 말을 듣고 먼저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을 들어가 자료를 검색 해보았지만, 업종 과밀도나 실패 가능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 추가 필요

- ☞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 파악 지표 등이 없어 동종 유사업종의 진입 통제가 어려움

통계청의 GIS서비스에는 대구 북구 동천동의 2010년 주거 인구 규모와 연령별, 산업분류별로 사업체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과거자료(4년전) 인데다가 원하는 업종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A씨에게 필요한 자료는 동천동의 치킨집 및 짬뽕집 수, 유사업종의 분포, 밀집도, 매출액 현황,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3.0이고 3.0은 개방·공유를 통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창업에 필요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북지방통계청을 찾았다.

동북지방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 이외에도 지자체 및 지역의 통계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역의 전문역량 결집을 통하여 센서스 및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현재는 스마트 폰 플랫폼에 기반한 통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A씨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치킨집은 희망 지역인 동천동에 너무 많아 포화 상태인데다 원룸촌도 있어 1~2인 가구가 많고, 창업 후 얼마 못가 폐업하는 등 폐업률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치킨집 보다는 닭강정 집을 창업할 때 보다 전망이 있고 맛의 차별화와 함께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를 알 수 있다면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 공공데이터·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창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면 창업 준비 부족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마케팅 전략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들어가는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통계청은 창업하려고 하는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통계자료를 만들어 서비스할 예정이다.



### 서비스 활용은 이렇게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 인구 밀도 변화, 주택 수 변화, 성·연령별 인구 분포 검색

- 검색 조건 : 특정일 오후 7시  
유동인구와 사업체(치킨점)위치 분포
- 화면 : 색으로 시각화  
유동인구(녹색), 사업체 분포(파란색)
- 특정지역 정보 검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단위)
- 모바일 화면에서 조사구 선택 시  
해당 조사구 단위의 수치 정보 제공



### 센서스+빅데이터+GIS 기반 소자본 창업 적지 분석

**한해 통계정보시스템(NDIS, SGIS)은 지역의 소자본 창업이나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통계가 수록되어, 창업 입문 및 입지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가능**

**동자본 1억**

**매이베우매 창업지**

매이베우매의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3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 70.9% : 국가경제 위협

**소자본 창업 적지 분석을 위하여 거주인구 급증지역, 유통인구 흐름 분석, 상품카드 거래액 등을 통한 Hot spot 선정**

**1. 상권 위치 선정**

**3. 적지 분석결과**

**2. 업종 선정**

업종	업종 코드	업종 명
음식점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음식점
주점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주점
편의점	5411,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5426, 5427, 5428, 5429, 5430	편의점
대형마트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9, 5330	대형마트

이동성 통계데이터 정보와 상품카드 거래 데이터, 센서스 거주인구 분포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 분석으로 다양한 통계 기반 적용

**시민일착용 통계 서비스 이용**

1. 집계구별 시간대,요일별 유통인구 업종별 지리적 밀집도 및 가령정
2. 매출액분석 결과 현황집계 변경 고려
3. 과거에 종사함으로써 1년 남짓 영업 하다가 폐업한 사람 확인

**5천 원치**      **₩250만 남**

정부 발표 한강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관으로 시민일착용 통계 서비스구현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 진정 및 과잉진정 방지
- 자영업 불허방지출과 (이 해한의 한의 의원들)

■ GIS로 표현된 창업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



## 대구일보

정치

POLITICS

## '지역특화 통계서비스' 관·학·연 손잡아

대구연구원-동북지방청-동국대 MOU-전문인력 양성 도모

2014.10.15 01:00 [김혜성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우대우데이 요즘



대구경북연구원, 동북지방청,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15일 국민제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연구원(영장 김준한)과 동북지방청(청장 윤석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재정)가 15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3개 기관의 업무발전과 국민제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학·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북지방청청은 국가통계의 개방·공유 등 정부3.0을 선도하고 지역활력성장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통계 공권개발과 행정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지역특화통계 생산, 국민제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동국대학교 경주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인프라 및 지원에 대한 공동 활용 지원과 빅데이터 분석가 및 통계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경북 동해안지역(포항시, 경주시) 지역활력성장권 발전계획 연구, 대구·경북 CEI 및 BSI 개발을 동북지방청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통계 기반의 지역발전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사람나눔 통계교실을 통해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할 계획입니다.



## |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접근성 제고 |

# 사랑나눔 통계교실, 소외계층 학생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다.

\* 이 정 만 교육운영과

통계에 관심이 많은 12살 A군: 베트남 출신 엄마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학원에 다닐 여유도 없고 수업시간에 통계는 지겹고 어렵기만 한데, 돈 들이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통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통계가 쉽지 않다. 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또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어렵기만 한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다가 교통비, 숙식비 등을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 통계이론에서 조사기획·분석까지 쉽게, 통학차량 지원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통계청 사랑나눔 통계교실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통계에 대해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1년 12월 통계청 직원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회 사랑나눔 통계교실은 대전시와 협업하여 위탁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9회 270여명의 산간벽지, 저소득층, 다문화 등의 학생들에게 통계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었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날 퀴즈 형식의 통계 골든벨!, 모듈별 게임을 통한 통계 주제선정, 야간 미술공연 등을 통해 학생들이 통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날에는 통계청장님과의 대화, 동물원·과학관 등 현장 설문조사, 설문결과 자료분석 등 통계청 소개와 통계 조사부터 분석까지를,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학습결과를 통계포스터로 발표하는 2박 3일 동안 직접 몸으로 뛰면서 조사하고 그래프도 만들어 보는 체험형 통계교육이다. 지금까지 이 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말을 빌리면 교실에서 배울 때와는 다르게 통계가 머리로 쑥쑥~ 통계의 바다에 풍덩~ 빠져든다고 하며, 한마디로 통계 종합선물세트라고도 한다.

또한 통계청 직원과 통계학과 대학생 선생님들이 모듈별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맨투맨으로 지도해 주니 어렵기만 했던 통계가 옆집 친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진다고도 한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교육 중 안전문제도 든든한 응급구조사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24시간 학생들 곁에서 함께하며 인근 119 구조대 및 응급병원과 협력하여 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



## ■ 사랑나눔 통계교실 교육 현장



통계전문가로의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학 생 : “선생님 이제 저도 통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직접 현장조사도 해보니 통계조사원 분들의 땀과 열정도 알 것 같아요.”

선생님 : “그렇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순한 수치 하나하나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란다.”

학 생 :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선생님 같은 통계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커서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요.”

선생님 : “물론, 이번 캠프에서 배운 것처럼 일상에서 통계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보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걸...”

앞으로도 통계청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여러 계층의 학생들이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통해 통계적 사고능력 및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할 계획이다.

## 경기매일

2013년 05월 22일(수) 종합

### 통계청,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와 사랑 나눠요

‘사랑나눔 통계교실’개최

권영복 기자/통계청(청장 박형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초등학교 35명을 대전 소재 통계교육원으로 초청해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개최한다.

‘사랑나눔 통계교실’은 어린이들이 통계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눔교육의 일환으로 전액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부터 3일간의 과정으로 열리는 이번 통계교실은 어린이들이 강의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관심있는 생활 속의 통계들을 살펴본 후 평소 알고 싶은 내용을 설문지로 만들어 현장에 나가 직접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창의적 체험학습형태로 진행된다.

2박3일간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통계교실의 프로그램은 팀 깃발 만들기, 통계 포스터 주제선정, 현장조사(대전오-월드), 한낮의 통계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 대전투데이

2013년 11월 03일

### 통계청, 꿈과 희망이 자라는 통계체험 실시



충청지방통계청과 통계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달 30일~지난 1일 2박 3일간 대전·충청지역의 12개 초등학교 학생 33명을 경북 영천의 보현산청소년야영장으로 초청,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개최했다.

「사랑나눔 통계교실」은 어린이들이 통계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눔교육의 일환으로 전액무료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번 통계교실의 프로그램은 팀 깃발 만들기, 통계 포스터 주제선정, 통계 페스티벌, ‘별의도시’영전에서 별별미술마을, 보현산 천문과학관 등 친구들과 함께 관심 있는 시설들을 살펴본 후, 평소 알고 싶은 내용을 설문지로 만들어 현장에 나가 직접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창의적 체험학습형식의 통계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연합뉴스

2014년 08월 12일 종합

## 통계청, 전남 여수 초등학교 대상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전남 여수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역의 5~6학년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개최하고, 참석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2014년 08월 20일 종합

## 충청지방통계청 '사랑나눔 통계교실' 운영



충청지방통계청은 20일 충북발전연구원, 통계교육원과 공동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어린이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열어 통계생산 전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와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접근성 제고 |

## 취약계층의 웹·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황 병 호 정보화기획과

정년퇴직한 대기업의 모 간부!!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연금도 모자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느냐,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구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고민을 하던 중 통계청의 통계를 활용하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홈페이지담당자 : “감사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퇴직한 노인 : “정보를 얻으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는데 눈도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서 동영상을 잘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홈페이지담당자 : “예, 소리가 안들리시면 화면 옆에 소리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보이시면 장애인용품코너에 가서 ‘화면 리더기’를 구입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퇴직한 노인 : “아, 예 !!! 그런 준비가 되어있었네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알려 주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고 아니면 원고를 잘 읽어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담당자 : “예, 기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1996년 11월 통계청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한 이후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와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신 IT기술의 활용, 이용자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최적의 통계정보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 받지 않고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웹 접근성의 대 명제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나아가 우리 청은 이러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웹 접근성 표준화 기구(W3C WAI)’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지침 2.0’이 정하고 있는 접근성 준수 4대축인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행의 용이성, 견고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통계청 대표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위배 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자체 진단 및 외부컨설팅(정보화진흥원)을 통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 직원 등 우리청의 소속부서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하여 ‘통계청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을 ’14.10.16일에 실시함으로써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지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자체 진단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국민의 만족도 조사시 좋은 결과로 평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웹 접근성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p>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의 용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홈페이지 내에 멀티미디어 홍보관 등 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수단(음성제공, 자막 제공 등)을 제공하였고</li> <li>- 시력 약시자를 위하여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에 명도대비를 4.5대 1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li> <li>-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음</li> </ul>
<p>운용의 용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를 키보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li> <li>- 키보드에 의한 초점이 논리적으로 이동하도록 했으며, 시각적으로 구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li> <li>- 광 과민성 발작 예방을 위하여 깜박임과 번쩍임을 사용제한하고 반복영역은 건너 뛰게 하였고</li> <li>- 우리청 홈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은 적절한 링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li> </ul>
<p>이해의 용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었으며</li> <li>-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를 예측가능하게 하였으며</li> <li>-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며</li> <li>- 입력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였음</li> </ul>
<p>견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물가, 소득 이해페이지 구축'시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향후 기술변화 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친숙한 디자인 (안정감을 주는 컬러)' 및 '인포그래픽'을 도입하고 모바일(스마트폰, 패드 등)용 앱도 같이 제작함으로써 기기별 반응형 웹을 실현하여 웹 및 앱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였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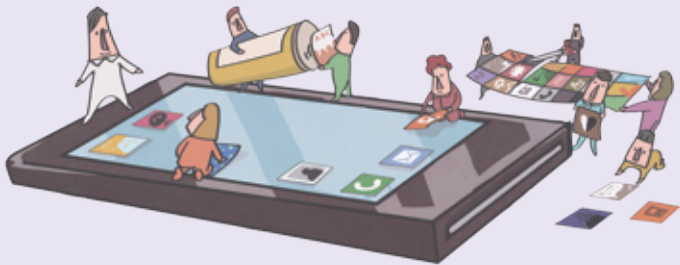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쉽고 즐겁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한 곳에 모아

KOSIS 모바일 서비스!!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 KOSIS 모바일 서비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통계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이 주 원 통계포털운영과

궁금한 실업률, 물가정보를 지하철에서 볼 수 있을까? 나와 관련된 재미있는 통계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다면?

H씨를 포함한 P물산 영업팀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바이어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중이다. 차 안에서 바이어는 느닷없이 한국의 인구와 이 지역의 인구를 묻는다. 모두 당황하며 인구를 대략 가늠하는 사이 흥길동씨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KOSIS 모바일에 접속하여 인구를 찾아 답변해 주었다. 인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물가 등의 정보를 얘기해 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간다.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기를 즐겨하는 K씨. 지하철에서 평소 보던 웹툰도 다 보고 지루해 하던 참에 얼마 전 아빠로부터 KOSIS 모바일 서비스의 통계 웹툰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학교에서 수업

받았던 통계가 재미있다면 얼마나 재밌다고... 하면서 들어가 보니, 귀여운 도니패밀리가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통계 지식을 알려준다. 통계 정보가 생활에 이렇게 밀착되어 보여질 수 있구나 하면서 웬지 이제는 통계 수업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통계청의 KOSIS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국가통계정보

통계청의 KOSIS는 2014년 9월말 현재 206개 기관, 698종 통계, 83,705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2012년부터 모바일로 12개 부문 510개 지표를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사회 변화상을 잘 반영하도록 지표 부문을 확대·개편하여 현재 11개 부문 1,134개 지표를 서비스 중이다. 주요 수치만을 한 눈에 보기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100대 지표」를 2013년에 추가하였으며, 딱딱한 수치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자화상」, 「같은 듯 다른 듯 남과여」와 같은 시각화 콘텐츠도 제공한다. 2014년도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통계에 기반하여 만화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통계웹툰」을 게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KOSIS 모바일 서비스 화면



The '100대 지표' screen shows a list of 100 major indicators with their values. The indicators are grouped into categories like '인구구조' (Population Structure), '경제활동' (Economic Activity), '인구밀도' (Population Density), '외국인 등록인구' (Registered Foreigners), '국내인구 이동자수' (Domestic Population Movement), '출생인구' (Birth Population), '가구수' (Number of Households), '평균소득' (Average Income), and '가계지출' (Household Expenditure).

인구구조	추계인구 ('13)	50,219,669 명
합계출산율 ('12)	1.30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	
총위양성률 ('13)	39.7 세	
총부양비 ('13)	36.8 생산가능인구 1명당	
인구밀도 ('10)	485.6 명/km <sup>2</sup>	
외국인 등록인구 ('11)	982,461 명	
국내인구 이동자수 ('13.09)	485,965 명	
출생인구 ('12)	327,073 건	
가구수 ('10)	17,339,422 가구	
월평균소득(전가구,명목) ('13.2/4)	4,040,630 원	
가계지출(전가구,명목) ('13.2/4)	3,156,974 원	
고용노동		



통계청이  정부 3.0을 이끌어 갑니다.

---

기획편집	통계청 창조행정담당관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통계청장
발행처	통계청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인쇄	협성문화사 042) 627-8893

---